

한국어 감각형용사의 어근 파생 접미사와 어근 형성*

홍석준**

〈차 례〉

1. 서론
2. 감각형용사의 어근 파생 접미사 분석
3. 감각형용사의 어근 형성 방법
4. 결론

【국문초록】

한국어에서 고유어 감각형용사는 대부분 ‘복합어근 + -하다’의 구조를 띤다. 감각형용사의 어근을 형성하는 파생 접미사는 아직까지 그 목록이 정리되지 않았고 어근 형성 방법도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감각형용사를 시각, 미각, 촉각, 청각형용사로 구분하여 각 어휘장에서 분석되는 어근 파생 접미사 목록과 그 접미사에 의해 형성된 복합어근을 제시했다. 그리고 감각형용사 어휘장에서 파악되는 어근 형성 방법으로 파생, 합성, 내적 변화, 어간의 어근화, 유추 등이 있음을 밝혔다. 어근 파생 접미사는 시각형용사에 해당하는 색채형용사에서 24개 유형, 명암형용사에서 12개, 크기형용사에서 27개 유형, 모양형용사에서 16개 유형이 분석되었고, 미각형용사에서 13개 유형, 촉각형용사에서 33개 유형, 청각형용사에서 3개가 확인되었다. 어근의 파생은 어간에 어근 파생 접미사가 결합(검- + -(으)ㅂ → 거뭇)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고, 합성은 동일 어근을 반복(거뭇거뭇)하거나 다른 어근을 결합(새콤달콤)시키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내적 변화에는 어근의 자음과 모음을 교체시키는 방법(불긋:빨긋:뽳긋)과 어근의 음절수를 확대(질척:질커덕)하거나 축소(거머무트름:거무트름)시키는 방법이 있다. 어간의 어근화는 형용사나 동사의 어간이 형태 변화 없이 어근으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5A07110773).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로서 ‘-하다’와 결합하는 것(둥글다:둥글하다)이고, 유추는 기존 어근들의 형태와 닮은 꼴을 취함으로써 그것들과 비슷한 의미를 띠는 방법(뜨뜻무레 cf. 노르무레, 시그무레)이다.

[주제어] 감각형용사, 어근 파생 접미사, 어근 형성, 파생, 합성, 내적 변화, 어간의 어근화, 유추

1. 서론

본고의 목적은 고유어 감각형용사에 포함된 어근 파생 접미사를 분석하여 그 목록을 제시하고 어근 형성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다. 감각형용사는 대부분 ‘복합어근 + -하다’의 구조로 분석되는데,¹⁾ 감각형용사의 어근을 형성하는 파생 접미사들은 매우 다양하여 아직 그 목록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상태이다. 어근 형성은 단어 형성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근 형성법은 단어 형성법에 비해 그동안 관심을 덜 받아왔다. 그래서 본고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어근 파생 접미사 목록을 확충하고, 어근 형성 방식을 더 깊이 있게 설명하는 데에 논의의 초점을 둔다.

감각형용사를 크게 시각형용사, 미각형용사, 촉각형용사, 청각형용사 등으로 구분하여 ‘복합어근 + -하다’형 단어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²⁾

(1) ‘복합어근 + -하다’형 감각형용사의 예

- 1) 시각형용사: 거뭇하다, 거무스름하다, 꺼뭇하다, 꺼뭇꺼뭇하다, 길찍하다, 높직하다, 가느스름하다, 길쭉스름하다, 둥글둥글하다
- 2) 미각형용사: 달콤하다, 달착지근하다, 달치근하다, 달크무레하다, 새콤달

1) 홍석준(2015:162-172)에 따르면 색채형용사 중에서 검은색에서는 78%, 흰색에서는 51%, 붉은색에서는 81%, 노란색에서는 67%, 파란색에서는 48%가 ‘복합어근 + -하다’형 단어이다. 파생어근과 어근 파생 접미사의 개념은 宋正根(2009:147-152), 홍석준(2015:15-17)을 참고할 수 있다.

2) 이 글에서는 신체 감각의 다섯 가지 영역인 시각, 미각(후각 포함), 촉각, 청각 등을 표현하는 형용사를 다루었고, 심리 감각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연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감각형용사 중에서 미각형용사는 후각의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 많으므로 후각형용사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미각형용사로 처리하였다.

- 콵하다, 짹짹하다, 짹짹름하다, 짹짹래하다, 비릿하다, 비틀하다
- 3) 촉각형용사: 미끌미끌하다, 미끈하다, 거칠하다, 거칠거칠하다, 거뿔하다, 반드래하다, 반드르르하다, 질척하다, 질퍽질퍽하다
- 4) 청각형용사: 떠들썩하다, 왁자지껄하다, 시끌시끌하다, 시끌벅적하다, 조용하다, 조용조용하다

위의 예들을 살펴보면 감각형용사의 어근을 형성하는 방법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거뿔, 달콵, 질척’ 등에서 보듯이 어간 ‘검-, 달-, 질-’에 어근을 파생하는 접미사 ‘-(으)스, -콵, -척’이 결합함으로써 어근을 형성하는 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어근의 반복(‘꺼뿔꺼뿔’)이나 합성(‘새콤달콵’), 음운교체(‘거뿔:꺼뿔’), 축소(‘달착지근:달차근’)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어근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나온 감각형용사에 대한 연구 중에서 이러한 어근 형성 방법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한 것으로는 송정근(2007), 송정근(2009)를 들 수 있다. 그 이전에도 많은 논문들이 있었으나 대부분 색채형용사나 미각형용사 등의 각 하위 어휘장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고, 그 분석 내용에 있어서도 앞의 두 논문만큼 자세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³⁾ 이 두 연구는 한국어 감각형용사의 어근에 대한 형태론적인 분석을 심도 있게 진행하여 감각형용사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송정근(2007)은 감각형용사 목록 중에서 빠트린 단어들이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 색채형용사의 범위를 단일 색채를 뜻하는 단어로만 한정했기 때문에 ‘거머누르께하다’와 같은 혼합 색채를 나타내는 단어, ‘검송검송하다, 거머번드르르하다’와 같이 색채와 상태

3) 색채형용사의 어근 형성에 대한 연구로는 김창섭(1985), 손세모돌(2000), 손용주(1999), 오정진(2008), 이승명(1993), 이필영(1989), 홍석준(2015) 등이, 미각형용사의 어근 형성에 대한 연구로는 송정근(2005, 2007), 배해수(1982) 등이, 촉각형용사에 대한 연구로는 이지희(2007)이, 청각형용사에 대한 연구로는 송정근(2018)이 참고할 만하다. 감각형용사 전반에서의 어근 파생 접미사에 대한 인식은 송철의(1992), 임성규(1994, 1997), 정재윤(1989)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동사나 형용사에서 파생한 의태어근에 대한 연구로 김강출(2003), 조현용(2016), 박동근(2017)을 참고할 수 있다.

를 동시에 나타내는 단어들은 제외되었다. 또한 미각이나 촉각형용사 등의 다른 부문에서도 대상이 되는 단어를 빠트린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까지 포함하여 살펴봐야 감각형용사의 어근을 더 폭넓고 정밀하게 검토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감각형용사의 파생어근을 중심으로 복합어근을 포함한 단어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이를 대상으로 어근 파생 접미사를 분석하고 어근의 구조를 살펴볼 것이다.⁴⁾ 여기서 다루는 단어는 『우리말갈래사전』, 『우리말역순사전』, 『네이버 국어사전』 등을 통해서 검색하고 사전 뜻풀이에 딸린 참조어를 검토하여 수집했다.⁵⁾

또한 어근 파생 접미사를 분석한 자료를 검토하여 감각형용사의 어근 형성 방법을 종합할 것이다. 위에서 파생, 합성, 음운교체, 축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어근이 형성되었음을 보았는데, 송정근(2007)에서는 파생, 합성, 음운교체 등을 주로 언급했을 뿐 유추나 축소에 의한 방법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⁶⁾ 따라서 본고에서는 어근 형성 방법에서 관찰되는 파생, 합성, 음운교체뿐만 아니라 어근의 축소, 어근의 확대 등의 내적 변화, 어간의 어근화, 유추 등을 더 설명해 내고자 한다.

2장에서는 감각형용사의 하위 어휘장별로 해당 어휘장에서 분석할 수 있는 어근 파생 접미사의 목록과 어근 파생 접미사에 의해 형성된 복합어근을 최대한 많이 예로 제시할 것이다.⁷⁾ 3장에서는 2장에서 검토한 어근 파생 접미사와 그 복합어근을 대상으로 어근 형성 방법을 간추려 정리하여 설명한

4) 따라서 감각형용사의 어근 파생 접미사 목록과 그 접미사가 분석되는 복합어근을 제시하는 이 글의 2장은 자료를 소개하는 성격도 있다.

5) 『네이버 국어사전』(<https://ko.dict.naver.com/#/main>)은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우리말샘』, 『전라북도 방언사전』 등이 함께 검색되는 온라인 사전이다. 본고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전라북도 방언사전』을 종이사전이 아닌 『네이버 국어사전』의 웹사전을 이용했다. 자주 인용하는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을 각각 ‘표준’, ‘고려대’로 표시하겠다.

6) 송정근(2007:150, 각주 14)에서 유추의 예로 든 것은 ‘고소무례하다’가 있는데 이 단어를 ‘달크무례하다, 시그무례하다, 시크무례하다’ 등에서 유추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고소무례하다’는 『우리말샘』에 북한어로 올라 있다.

7)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사전에 실린 표준어이다. 방언 자료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고,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언급하기로 한다. 앞으로 각 지역 방언에서도 감각형용사의 어근 파생 접미사 목록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다. 그렇게 함으로써 감각형용사의 어근 구조와 형성법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정교해질 것이다.

2. 감각형용사의 어근 파생 접미사 분석

이제 감각형용사를 시각, 미각, 촉각, 청각 형용사로 나누어 각 부문에서 분석되는 어근 파생 접미사를 정리해 보자. 각 어근 파생 접미사가 분석되는 파생어근과 그 파생어근이 포함된 합성어근의 예를 제시한다.

1) 시각형용사의 어근 파생 접미사

시각형용사를 다시 색채, 명암, 크기, 모양형용사로 구분하여 어근 파생 접미사들을 분석한 결과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⁸⁾

(2) 색채형용사의 어근 파생 접미사⁹⁾

- 1) -옥: 거무룩¹⁰⁾
- 2) -(으)께: 거무께, 가무께, 꺼무께, 까무께, 노르께, 누르께, 푸르께, 파르께,
거머누르께, 가마노르께,
- 3) -끄레: 노르끄레, 누르끄레, 너르끄레, 다투르끄레, 노리끼리, 누리끼리¹¹⁾

8) 시각형용사를 색채, 명암, 크기, 모양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은 송정근(2007)을 따랐다. 송정근(2007)에서는 이 글에서 사용하는 ‘어근 파생 접미사’라는 용어 대신에 ‘어근형성요소’를 사용했다. ‘어근형성요소’는 ‘파생’이라는 용어가 단어를 형성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어근 차원에서는 ‘파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마련한 용어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단어 층위에서와 같이 어근 층위에서도 단어 형성 과정과 평행한 ‘파생’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단어 파생 접미사에 대응하는 ‘어근 파생 접미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9) 이 부분은 홍석준(2015:27-31)을 검토하여 새로 정리한 것이다.

10) 홍석준(2015:28)에서는 ‘거무룩’을 ‘검- + -으룩’으로 분석했으나 홍석준(2020:128, 각주 2)에서는 ‘거물거물, 거물거러다’ 등에서 분석되는 ‘거물’이 있으므로 ‘거무룩’을 ‘거물 + -옥’으로 분석했다. 여기서는 홍석준(2020)을 따랐다.

11) 송정근(2007:70, 209)에서는 ‘끼리’를 새로운 어근 파생 접미사로 분석했으나 ‘노리끼리, 누리끼리’에서 ‘끼리’를 분석한다면 남은 부분 ‘노리, 누리’가 ‘노르다, 누르다’의 어간과 형태가 다르므로 이

- 4) -(으)끄름: 거무끄름, 가무끄름, 꺼무끄름, 까무끄름, 노르끄름, 누르끄름
- 5) -끄무레: 노르끄무레, 누르끄무레
- 6) -끔: 회끔, 회끔회끔, 해끔, 해끔해끔, 회덜끔, 해덜끔, 허어덜끔, 하야덜끔
- 7) -끔 + -(으)레: 회끄무레,¹²⁾ 해끄무레
- 8) -끗: 회끗, 회끗회끗, 해끗, 해끗해끗
- 9) -뜩: 회뜩, 회뜩회뜩, 해뜩, 해뜩해뜩, 해뜩발긔
- 10) -(으)레: 거무레, 가무레, 꺼무레, 까무레, 발그레, 벌그레, 볼그레, 불그레, 빨그레, 뺨그레, 뽕그레, 뽕그레, 푸르레¹³⁾
- 11) -(으)름: 발그름, 벌그름, 볼그름, 불그름, 뺨그름, 뺨그름, 뽕그름, 뽕그름¹⁴⁾
- 12) -(으)ㅁ: 부옴, 보옴, 뿌옴, 뽀옴, 노름, 노름노름, 누름, 누름누름, 파름, 파름파름, 푸름푸름
- 13) -(으)ㅁ + -(으)레: 노르무레, 누르무레, 파르무레, 퍼르무레, 푸르무레
- 14) -면: 놀면, 놀면
- 15) -(으)무레: 발그무레, 벌그무레, 볼그무레, 불그무레¹⁵⁾
- 16) -(으)ㅅ: 거뭇, 거뭇거뭇, 가뭇, 가뭇가뭇, 꺼뭇, 꺼뭇꺼뭇, 까뭇, 까뭇까뭇, 부잇, 부잇부잇, 보잇, 보잇보잇, 발긔, 발긔발긔, 해뜩발긔, 벌긔, 벌긔벌긔, 볼긔, 볼긔볼긔, 울긔볼긔, 볼긔, 볼긔볼긔, 울긔볼긔, 뺨긔, 뺨긔뺨긔, 뽕긔, 뽕긔뽕긔, 뽕긔, 뽕긔뽕긔, 뽕긔, 뽕긔뽕긔, 노룻, 노룻노룻, 누룻, 누룻누룻,

렇게 분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노리끼리’는 ‘노르끄레’와 기본 의미가 같고 제2, 3, 4음절의 모음만 교제한 것이므로 여기서는 ‘노리끼리’를 ‘노르끄레’의 모음교체형으로 분석한다.

- 12) 이때의 ‘회끄무레’는 『표준』에서의 ‘회끄무레하다’ 1.생김새가 변듯하고 빛깔이 조금 희다. 2.어떤 사물의 모습이나 불빛 따위가 선명하지 아니하고 흐릿하다.’의 뜻풀이 1일 때의 것이다. ‘회- + -끔 + -으레’로 분석된다(홍석준 2015:49-50). ‘회끄무레하다’의 의미가 이 사전의 뜻풀이 2일 경우에는 두 단어 ‘회다’와 ‘끄무레하다’가 합성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13) ‘가무레’를 ‘가물 + -에’로 분석할 수도 있을 듯하나(‘거무룩’을 ‘거물-웁’으로 분석하듯이), 이 어근들에서 분석되는 ‘-(으)레’가 ‘검-’에 결합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듯하다. 다른 색채형용사에서 공통적으로 ‘-(으)레’가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 14) ‘-(으)름’이 ‘붉다’에만 결합하는 접미사로 분석되지만, ‘노름, 누름, 파름’ 등과 같이 어근 말음절이 ‘름’인 어근들에 이끌려 이들과 형태를 일치시키면서(유추)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홍석준 2015:134-135).
- 15) ‘불그무레’는 ‘불 + -(으)ㅁ + -으레’로 분석할 가능성이 있으나 어근 ‘불금(< 불 + -(으)ㅁ)’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렇게 분석하기가 조심스럽다. ‘거무레, 회끄무레, 노르무레, 푸르무레’ 등의 ‘-무레’형 어근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붉다’ 계열에서도 ‘-무레’형 어근을 형성해서(유추) 어휘 체계의 빈칸을 채운 것일 가능성이 높다(홍석준 2015:134-135).

누릿, 파룻, 파룻파룻, 퍼룻, 푸룻, 푸룻푸룻, 파릿파릿

17) -사: 해사¹⁶⁾

18) -숭: 검숭, 검숭검숭, 감숭, 감숭감숭, 감숭

19) -(으)스레: 거무스레, 가무스레, 꺼무스레, 까무스레, 하야스레, 허여스레, 회읍스레, 해읍스레, 허엽스레,¹⁷⁾ 보우스레, 부우스레, 뵤우스레, 뽀우스레, 발그스레, 벌그스레, 불그스레, 불그스레, 빨그스레, 뿔그스레, 뿔그스레, 뿔그스레, 노르스레, 누르스레, 파르스레, 퍼르스레, 푸르스레

20) -(으)스름: 거무스름, 가무스름, 꺼무스름, 까무스름, 하야스름, 허여스름, 회읍스름, 해읍스름, 보우스름, 부우스름, 뵤우스름, 뽀우스름, 발그스름, 벌그스름, 불그스름, 불그스름, 빨그스름, 뿔그스름, 뿔그스름, 뿔그스름, 뿔그스름, 노르스름, 누르스름, 파르스름, 푸르스름

21) -실: 검실검실, 감실감실

22) -영: 누렁누렁

23) -적/작: 검적검적, 감작감작, 꺾적꺾적, 꺾작꺾작

24) -화: 불과

지금까지 색채형용사에서 분석되는 어근 파생 접미사 24개 유형과 그에 의해 형성된 어근들을 살펴보았다. 위 어근 파생 접미사 중에서 송정근(2007)에서 제시하지 않은 것은 ‘1) -옥, 6) -끔, 8) -끗, 9) -뜯, 12) -(으)ㅁ, 14) -면, 15) -(으)무레, 17) -사, 18) -숭, 21) -실, 22) -영, 23) -적/작, 24) -화’ 등이다. 송정근(2007)에서는 이들 어근 파생 접미사가 분석되는 단어들을 연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송정근(2007)에서 제시하지 않은 어근 파생 접미사로 언급되는 것

16) 홍석준(2015:95, 각주 63)에서는 ‘해사하다’가 ‘화사(華奢)하다’²⁾와 형태와 의미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화사하다’의 ‘화’가 ‘해’로 모음교체되어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17) ‘회읍스레, 해읍스레, 허엽스레’와 ‘회읍스름, 해읍스름’에서 각 어근의 제2음절 말음으로 ‘ㅂ’이 끼어든 이유는 ‘-스레하다’형 단어와 ‘-스름하다’형 단어에서 ‘-스레’형 어근과 ‘-스름’형 어근의 음절수가 4음절인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으스레’와 ‘-으스름’의 ‘으’ 탈락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이병근 1981:21, 김창섭 1985/2008:361, 홍석준 2015:45).

들은 그 논문에서 그런 어근 파생 접미사가 분석되는 단어를 다루지 않은 것이다. 이 외에도 어간을 반복해서 형성된 어근 ‘놀놀, 놀놀’도 있다.¹⁸⁾ 그러나 어간이 형태 변화 없이 어근이 되어 ‘-하다’형 단어를 형성한 예는 없다.¹⁹⁾

홍석준(2019)에서 ‘거무칙칙, 거무데데, 거무뎡뎡, 거무숙숙, 거무접접, 거무죽죽, 거무축축, 거무충충, 거무튀튀, 누르통통’ 등의 복합어근에서 제2성분인 ‘칙칙, 데데, 뎡뎡, 숙숙, 접접, 죽죽, 축축, 충충, 튀튀, 통통’은 대부분 ‘-하다’형 단어의 어근이고 어휘적 의미가 충분하므로 어근으로 분석했다. 본고에서도 이 견해에 따라 이들을 어근으로 분석하여 이 어근 파생 접미사 목록에서는 제외했다.

한편 홍석준(2020)에서 ‘검측하다’의 어근 ‘검측’의 ‘측’을 한자 ‘측(測)’으로 분석하여 “어둡고 맑지 않음, 엉킴함”의 의미를 띤다고 했고, ‘검측측’의 ‘측측’은 이 ‘측(測)’을 반복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논문에서는 ‘측(測)’을 어근 파생 접미사로 인정하는 듯했으나, ‘검숭, 검실검실, 검적검적’의 ‘-숭, -실, -적’보다는 어휘적 의미가 강하고 다른 파생어근을 더 이상 형성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접미사보다는 어근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듯하다. 또한 ‘검측측하다’의 단어 구조가 ‘거무칙칙하다’나 북한어인 ‘검충충하다’와 비슷한 것으로 보아 ‘측측’이 어근으로 분석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여 어근 파생 접미사 목록에서 제외했다.²⁰⁾

(3) 명암형용사의 어근 파생 접미사

1) -끔: 말끔, 멀끔, 멀끔멀끔²¹⁾

18) 홍석준(2015:169-170)에서도 ‘놀놀, 놀놀’이 ‘노르다, 누르다’의 어간이 1음절로 줄어서 반복된 것으로 분석했다.

19) ‘검하다, 캄하다’는 『고려대』와 『우리말샘』에 각각 ‘검다, 까맣다’의 전남 방언으로 올라 있다. ‘검하다, 캄하다’에서 ‘검’과 ‘캄’이 색채형용사 어간 ‘검-’과 ‘캄-’이라면 어간의 어근화에 의해 어근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20) ‘검측’의 ‘검’이 홍석준(2015:10)에서 제시한 ‘검침(黔沈)하다2, 검탐(黔食)스럽다, 검특(黔慝)하다’의 한자어근 ‘검침(黔沈), 검탐(黔食), 검특(黔慝)’ 등에 보이는 ‘검(黔)’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21) ‘말끔말끔하다’라는 단어도 있을 법한데 사전에 없다.

- 2) -(으)르: 가물가물, 까물까물, 거물거물, 꺼물꺼물²²⁾
- 3) -(으)레: 말그레
- 4) -(으)름: 어스름, 으스름²³⁾
- 5) -(으)스: 말긋말긋,²⁴⁾ 흐릿, 흐릿흐릿, 여릿, 여릿여릿, 야릿, 야릿야릿
- 6) -스그레: 맑스그레
- 7) -(으)스레: 말그스레, 멀그스레
- 8) -(으)스름: 말그스름, 멀그스름, 열브스름
- 9) -에: 어스레,²⁵⁾ 으스레
- 10) -쑥: 말쑥, 멀쑥, 말쑥²⁶⁾
- 11) -적/쩍: 반작, 반작반작, 번쩍, 번쩍번쩍, 반짝, 반짝반짝, 번쩍, 번쩍번쩍²⁷⁾
- 12) -핏: 어슬핏

이상으로 명암형용사에서 분석되는 어근 파생 접미사 12개와 그에 의해 형성된 어근들을 제시했다. 이 어휘장에는 어간의 반복에 의해 형성된 ‘흐리 흐리하다’가 있지만, 어간의 어근화에 의한 단어형성의 예는 없다.²⁸⁾ 이들

22) 이들 반복형 어근에 의해 형성된 단어들에 대응하는 ‘가물하다, 까물하다, 거물하다, 꺼물하다’는 사전에 없다.

23) ‘어스름’과 ‘으스름’은 사전에서 명사로 처리했으나 여기에서는 그것의 문법적 지위가 어근이라고 본다(홍석준 2018 참고). ‘어스름하다, 으스름하다’의 어근 ‘어스름, 으스름’이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일 수 있는 용법을 획득했지만 그 자격은 여전히 어근이다. ‘어스레하다, 으스레하다’의 어근 ‘어스레, 으스레’는 아직 단어로 사용된 예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서도 어근으로 처리했다.

24) ‘말긋하다’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뭉다’에 대해 ‘뭉긋하다’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말긋하다’도 사용될 수 있을 듯하다.

25) ‘어슬하다, 어슬어슬하다’의 ‘어슬’과 ‘-에’로 분석된다. 송정근(2007:75-76)에서는 ‘어스름’을 ‘어슬 + -(으)름’으로 분석했으나, ‘어스레’는 분석하지 않았다.

26) ‘뭉다’에서 ‘뭉속하다’가 파생된 것처럼 ‘말쑥’은 ‘말- + -숙 > *말속 > 말쑥’으로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말쑥하다’는 “모양이 지저분하지 않고 유난히 깨끗하다”라는 뜻이어서 ‘말쑥하다’보다 맑은 정도가 더 강한 느낌을 나타낸다. ‘卜’가 ‘卜’로 전설모음화되면서 의미가 강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설모음화에 의한 어감 강화와 관련해서는 정인호(2013)을 참고할 수 있다.

27) 이들에서 분석되는 ‘반-, 반-’은 형용사의 어간이 아니다. ‘반-, 번-’은 ‘변하다, 반하다, 뻔하다, 뻔하다’ 등에서 분석되는 어근이다. ‘변하다’는 『표준』에서 ‘변연하다’의 준말로 설명했으나 『고려대』에서는 이 둘을 유의어로 처리했다.

28) 『우리말샘』에 북한어로 ‘흐리하다’가 들어 있는데, ‘흐리다’의 어간 ‘흐리-’가 어근으로서 단어를 형성한 예이다. 색채형용사 ‘검다’와 관련하여 ‘검검하다, 짙검하다, 껌껌하다, 감검하다, 껌껌하다’ 등도 어간 ‘검-, 감-, 껌-’의 반복과 자음교체로 어근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색채 의미를 띤 어간의 반복으로 명암 의미를 띤 어근을 형성했다. ‘검검하다’라는 단어가 없는 점이 특이하다.

어근 파생 접미사 중에서 송정근(2007)에서 제시하지 않은 것은 ‘2) -(으)르, 9) -에, 12) -빚’ 등이다.

6)의 ‘맑스그레’는 ‘말스그레’와 유의관계에 있다. ‘맑스그레’가 ‘맑- + -숙 + -으레 > *맑수그레 > 맑스그레’로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물스그레’의 형태에 이끌려 ‘맑-’에 ‘-스그레’가 결합되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물다’에 대해 ‘물숙하다, 물수그레하다, 물스그레하다, 물그스레하다’가 있고 ‘맑다’에 대해 ‘말숙하다, 말그스레하다’가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물스그레’는 ‘물숙-으레 > 물수그레 > 물스그레’로 형성되었을 것이고, ‘맑스그레’는 ‘물스그레’에 유추되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2)의 ‘-빚’은 ‘어스름하다, 어스레하다’에서 분석되는 어근 ‘어슬’에 결합하여 ‘조금 어스레함’을 뜻하는 ‘어슬빚’을 형성했다. ‘어슬빚하다’와 의미가 비슷하고 단어 구조도 비슷한 ‘어렵빚하다’가 있어서 ‘빚’과 ‘빚’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²⁹⁾

(4) 크기형용사의 어근 파생 접미사

- 1) -다마: 기다마³⁰⁾
- 2) -달 + -막: 작달막, 짧달막 cf. 작다랗다, 짧다랗다
- 3) -뚝/뚝: 갈뚝, 갈뚝갈뚝, 짙뚝, 짙뚝짙뚝, 질뚝, 질뚝질뚝, 짙뚝, 짙뚝짙뚝
- 4) -(으)ㅁ: 기름, 기름기름, 가름, 가름가름, 개름³¹⁾, 아툼,³²⁾ 자금자금,³³⁾

29) 『우리말샘』에 북한어로 동사 ‘구빚하다(조금 굵은 듯하게 하다.)’와 형용사 ‘알빚하다(조금 얇은 듯하다.)’가 있어서 참고가 된다.

30) 『우리말샘』에 ‘지다마하다(‘기다랗다’의 강원방언), 굶다마하다(‘굶다랗다’의 강원방언), 커다마하다(‘커다랗다’의 평북방언), 크다마하다(‘커다랗다’의 강원방언)’가 올라 있다. ‘기다마하다’의 준말이 ‘기다랗다’이고, ‘기다랗다’가 ‘기다랗다’와 유의어인 것으로 보아 ‘기다랗다(< *기다라하다)’의 ‘르’이 ‘ㅁ’으로 교체된 것일 수도 있겠다. ‘커다랗다(‘커다랗다’의 비표준어), 툽그랗다(‘툽그랗다’의 경기방언)’를 참고하고 주로 ‘랗다’형이 ‘랗다’형의 방언형임을 고려할 때 ‘기다마하다’도 ‘기다랗다’의 방언형이 표준어가 된 것으로 보인다. ‘기다랗다’와 ‘기다랗다’의 준말로 ‘기랗다’가 있다.

31) 『우리말샘』에 북한어로 ‘개름개름하다(“여럿이 다 또는 매우 귀여우면서도 조금 긴 듯하다.”)’라는 단어가 있다.

32) 『표준』에서 ‘아툼하다’를 ‘야트막하다’의 준말로 처리했으나 『고려대』에서는 이 두 단어를 유의어로 처리했다. ‘야트막’은 ‘야툼 + -악’으로 더 분석할 수 있으므로 ‘아툼하다’가 ‘야트막하다’의 준말이 아니고 ‘야트막하다’가 ‘아툼하다’에서 파생된 단어임을 알 수 있다. 송정근(2007:75)에서는 ‘어툼하다, 여트막하다’를 명암형용사로 다루었으나, 그 뜻이 “깊이나 높이가 조금 열다.”이므로 여

- 두툼, 도툼³⁴⁾, 자름³⁵⁾
- 5) -(으)ㅁ + -아: 자그마, 조그마, 쪼그마, 조끄마, 쪼끄마³⁶⁾
- 6) -(으)ㅁ + -악: 야트막, 여트막³⁷⁾
- 7) -(으)ㅁ + -지막: 큼지막
- 8) -(으)ㅁ + -직: 큼직, 큼직큼직
- 9) -막: 째막, 째막째막, 땅딸막
- 10) -(으)ㅅ: 너붓, 나붓, 조붓, 조붓조붓, 가늑
- 11) -수름: 깊수름
- 12) -숙/쑥/쑤: 깊숙,³⁸⁾ 잘쑥, 잘쑥잘쑥, 째쑥, 째쑥째쑥, 질쑥, 질쑥질쑥, 째쑥, 째쑥째쑥³⁹⁾
- 13) -쑤: 길쑤, 길쑤길쑤⁴⁰⁾
- 14) -(으)스름: 기르스름, 가르스름, 가느스름, 알브스름⁴¹⁾

기에서는 크기형용사에서 다룬다.

- 33) '자금자금하다'와 관련해 '자금하다'가 존재할 듯하지만 사전에는 없다.
- 34) 『우리말샘』에는 북한어로 '두툼두툼하다'와 '도툼도툼하다'가 있다.
- 35) 『우리말샘』에는 북한어로 '자름자름하다'가 있고 그 유의어로 '잘름잘름하다'도 있다. 그런데 '잘름하다'는 없다.
- 36) 『표준』에서 '자그마하다'는 '〈저고마하다(두시-초) ← 적- + -옴- + 마 + -ㅎ-〉'로, '조그마하다'는 '〈조고마하다(두시-초) ← *족 + -옴 + 마 + ㅎ-〉'로 어원을 밝혀 놓았다. '조고마하다'에 대한 분석에서 '*족'을 재구하기보다는 '저고마하다'의 '저'가 모음교체되어 '조'가 된 어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 37) 송정근(2007:213)에서는 '야트막'을 '얕- + -(으)막'으로 분석했으나 '야툼'이라는 어근이 있으므로 '얕- + -(으)ㅁ + -악'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째막, 땅딸막' 같은 예는 '막'으로 끝나는 어근에 형태를 일치시키면서 '막'으로 끝나는 어근의 의미를 띠기 위해서 유추된 것으로 보인다. '-지막'도 '-직'을 '막'으로 끝나는 어근 형태에 일치시키기 위해 '-지막'으로 음절수를 늘린 것으로 보인다.
- 38) '깊숙하다'와 관련된 '깊수름하다'는 『고려대』에서는 "온근히 깊고 으스스하다."로, 『표준』에서는 "생각이 온근히 듭숙하고 신중하다."로 뜻풀이되어 있다. 『고려대』에 따르면 이 단어도 크기 형용사에 들어갈 수 있다. '-수름하다'형 형용사는 '-스름하다'형 형용사에 대한 방언형으로 보인다(예: 불구 수름하다(경기, 경남, 전북), 가느수름하다(경북)). 그렇다면 '깊수름하다'는 '-수름하다'형 단어의 형태에 이끌려 형성된 단어이거나 어느 방언형이 표준어로 인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39) '잘쑥하다'는 "긴 물건의 한 부분이 오목하게 쑥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고, '잘룩하다'와 유의관계이다. 송정근(2007:213)에서 '째쑥, 째쑥째쑥'을 '짧다'에서 파생된 예로 보였으나 이들은 '잘다'에서 파생된 것이다. 북한어에는 '잘쑥하다'와 관련된 '잘쑥하다, 잘쑥잘쑥하다, 째쑥하다, 째쑥째쑥하다', '길쑥하다'와 관련된 '길쑥하다, 길쑥길쑥하다, 겹쑥하다, 겹쑥겹쑥하다, 갈쑥하다, 갈쑥갈쑥하다' 등이 더 있다.
- 40) '겹쑥하다, 겹쑥겹쑥하다'는 사전에 없고, 『우리말샘』에 북한어로 '갸쑥하다, 갸쑥갸쑥하다'가 있다.
- 41) 색채형용사에서는 '-(으)스름'과 '-(으)스레'에 의해 형성된 파생어근이 매우 많지만, 크기형용사에서는 '-(으)스름'에 의한 파생어근만 조금 있을 뿐이고 '-(으)스레'에 의한 파생어근은 없다는 점이

- 15) -실: 얹실, 얹실얹실⁴²⁾
- 16) -옥/옥: 잘록, 잘록잘록, 짤록, 짤록짤록, 질록, 질록질록, 짚록, 짚록짚록⁴³⁾
- 17) -적/작: 넓적, 넓적넓적, 납작, 납작납작⁴⁴⁾
- 18) -적 + -스레: 넓적스레
- 19) -적/작 + -스름: 넓적스름, 납작스름
- 20) -죽/죽: 길죽, 길죽길죽, 갈죽, 갈죽갈죽,⁴⁵⁾ 너부죽, 나부죽,⁴⁶⁾ 넓죽, 넓죽
넓죽, 납죽, 납죽납죽⁴⁷⁾
- 21) -죽/죽 + -스름: 길죽스름, 갈죽스름, 넓죽스름, 납죽스름 cf. 얹죽스름⁴⁸⁾
- 22) -지막/찌막: 높지막, 나지막, 멀찌막
- 23) -직/찍: 길찍, 길찍길찍, 갈찍, 갈찍갈찍,⁴⁹⁾ 가직, 멀찍, 멀찍멀찍, 높직,
높직높직, 나직, 나직나직, 널찍, 널찍널찍, 좁직, 굵직, 굵직굵직, 얹찍, 얹
찍얹찍⁵⁰⁾
- 24) -직/찍 + -스름: 얹찍스름⁵¹⁾

대조적이다. 색채형용사에서는 ‘거무스름:거무스레’와 같이 ‘-(으)스름:-(으)스레’ 어근쌍이 규칙적으로 존재하지만 크기형용사에서는 이러한 어근쌍이 ‘넓적스름:넓적스레’의 한 예만 있을 뿐이다.

- 42) 『표준』에서 ‘얹실하다’와 ‘얹실얹실하다’의 발음을 각각 ‘[얹썰하다]’와 ‘[얹썰탈썰하다], [얹썰탈썰하다]’로 제시했는데 ‘[얹썰하다]’나 ‘[얹썰얹썰하다]’로 발음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만약 사전의 발음이 맞다면 〈한글 맞춤법〉 제4장 제3절 제21항의 ‘널찍하다, 알따랗다’처럼 ‘얹썰하다’와 ‘얹썰얹썰하다’로 적어야 할 것이다.
- 43) 3)의 ‘잘뚝, 잘뚝잘뚝, 짚뚝, 짚뚝잘뚝, 질뚝, 질뚝질뚝, 짚뚝, 짚뚝잘뚝’ 등은 이들의 유의어이다.
- 44) 송정근(2007:212)에서는 ‘-적/작’과 함께 ‘-죽/죽’을 음운교체 관계로 분석했으나 ‘넓적하다(편편하고 얹으면서 꽤 넓다.)’와 ‘넓죽하다(길쭉하고 넓다.)’는 의미 차이가 분명하므로 ‘-적’과 ‘-죽’을 다른 접미사로 구별해야 한다.
- 45) 『우리말샘』에 한국어로 ‘꺾죽하다, 꺾죽꺾죽하다, 꺾죽하다, 꺾죽꺾죽하다’가 있다.
- 46) ‘너부데데하다, 나부데데하다’ 등의 단어와 비교하면 ‘너부, 나부’에 ‘-죽’이 결합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우리말샘』에 한국어로 ‘나부작하다(약간 납작하다.)’가 있다.
- 47) 『우리말샘』에 한국어로 ‘가늘죽하다(좁 가늘다.)’가 있다.
- 48) ‘얹죽하다’는 사전에 없으므로 ‘얹죽스름’은 ‘[얹-죽] + -스름’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얹찍스름’이 ‘길죽스름’류에 이끌려 ‘찍’이 ‘죽’으로 변한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송정근(2007:82)에서는 ‘-죽스름’ 전체를 하나의 어근 파생 접미사로 분석했다.
- 49) 『우리말샘』에 한국어로 ‘꺾찍하다, 꺾찍꺾찍하다’가 있다.
- 50) 『우리말샘』에 한국어로 ‘가느직하다(꽤 가늘다.)’가 있다.
- 51) 『표준』, 『고려대』, 『우리말샘』에 ‘얹찍하다: 얹은 듯하다.’로, ‘얹찍스름하다: 매우 얹은 듯하다.’로 뜻풀이가 되었는데 이것은 어근 파생 접미사 ‘-(으)스름’의 의미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으)스름’은 어근의 의미 정도성이 더 약한 상태임을 나타내므로 ‘얹찍스름’은 “조금 얹찍함”을 뜻하고 따라서 ‘조금 얹찍하다.’로 뜻풀이해야 맞다. ‘조금 얹찍하다.’라는 것은 “얹은 정도”에 있어서 ‘얹찍’보다 덜한 상태, 즉 ‘얹찍’보다 덜 얹은 상태를 가리킨다. 송정근(2007:82)에서도 ‘길죽스름하다(조금

25) -쫘: 길쫘, 길쫘길쫘, 갇쫘, 갇쫘갇쫘⁵²⁾

26) -쫘 + -악: 길쫘막, 갇쫘막⁵³⁾

27) -팍: 알팍

이상으로 크기형용사에서 분석되는 어근 파생 접미사 27개 유형과 그에 의해 형성된 어근들을 살펴보았다. 이 어휘장의 어근 형성이 단순하지 않고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근 파생 접미사의 종성을 기준으로 보면 ‘ㄱ’과 ‘ㄴ’이 주류를 이룸을 알 수 있다. 송정근(2007)에서 제시하지 않은 어근 파생 접미사는 ‘2) -달 + -막, 3) -뚝/뚝, 5) -(으)ㄱ + -아, 6) -(으)ㄱ + -악, 7) -(으)ㄱ + -지막, 8) -(으)ㄱ + -직, 10) -(으)ㅅ, 15) -실, 16) -옥/옥, 18) -적 + -스레, 26) -쫘 + -악, 27) -팍’ 등이다. 이 어휘장에서는 어간 반복에 의해 형성된 어근 ‘쭈쭈, 찰찰, 자찰, 가늘가늘’이 존재한다.⁵⁴⁾ 여기 ‘자찰’은 ‘찰찰’에서 제1음절 종성 ‘ㄹ’이 떨어져 나간 것인데 ‘자찰’과 ‘찰찰’이 모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어간이 형태 변화 없이 어근으로서 단어형성에 참여한 것은 찾을 수 없었다.

4)과 6)에서 ‘야툼~야트막’, 25)와 26)에서 ‘길쫘~길쫘막’, 22)와 23)에서 ‘멀찍~멀찌막’, 7)과 8)에서 ‘큼직~큼지막’, 2)와 9)의 ‘작달막, 짧달막, 찹막, 땅딸막’ 등에서 어근 말음절이 ‘막’으로 일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야트막’과 ‘길쫘막’은 각각 ‘야툼 + -악’, ‘길쫘 + -악’으로 분석되어 어근 파생 접미사 ‘-악’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멀찌막’은 ‘멀찍’의 ‘찍’을 ‘찌막’으로, ‘큼지막’은 ‘큼직’의 ‘직’을 ‘지막’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어근 파생 접미사 ‘-악’이 분석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작달막, 찹막, 땅딸막’은 ‘작달 + -막, 찹- + -막, 땅딸 + -막’으로 분석할 수 있어서 어근 파생 접미사 ‘-막’이

길쫘하다’는 ‘길쫘하다(조금 길다)’보다 덜 긴 상태, 즉 더 짧은 상태를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이와 같이 ‘얇쫘스름하다’는 “조금 얇쫘하다.”로 뜻풀이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52) 『우리말샘』에 북한어로 ‘겉쫘하다, 갇쫘겉쫘하다’가 있다.

53) 송정근(2007:213)에서는 이들을 ‘-지막’이 분석되는 ‘높지막, 나지막, 멀찌막’에 참고사항으로 제시했으나 분석하지는 않았다. 『우리말샘』에 북한어로 ‘갇쫘막하다’가 있다.

54) ‘쭈쭈하다’와 ‘찰찰하다’는 『고려대』에, ‘가늘가늘하다’는 『우리말샘』에 실려 있다.

확인된다. 이런 방식으로 ‘막’으로 끝나는 어근들이 일정한 어휘장을 형성하여 “조금 그러함” 정도의 의미를 공통으로 띠고 있다.

17), 18), 19)에서 ‘넓적~넓적스레~넓적스름’, 20)과 21)에서 ‘길쭉~길쭉스름’, 23)과 24)에서 ‘알쭉~알쭉스름’ 등을 보면 ‘넓적, 길쭉, 알쭉’ 등은 ‘-(으)스레, -(으)스름’이 결합할 수 있는 어근이 된다. 왜 그럴까? ‘넓적, 길쭉, 알쭉’ 등은 그 의미가 어기의 정도성이 충분히 있음, 즉 “꽤 X함(X’는 어기)”을 띠어서 ‘-(으)스레, -(으)스름’이 결합해서 다시 “조금 X함(X’는 어기)”이라는 의미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논리가 성립한다면 송정근(2007:66-67)에서와 같이 ‘거뭇, 거무스름’, ‘가늏, 가느스름’ 등에서 ‘거무스름’을 ‘거뭇 + -(으)름’으로, ‘가느스름’을 ‘가늏 + -(으)름’으로 분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거뭇’과 ‘가늏’은 그 의미가 “조금 검음”과 “조금 가늏” 정도여서 이들에 다시 어근 파생 접미사 ‘-(으)름’이 결합될 수 있을 정도로 의미의 “충분성”을 띠지 못하기 때문이다.

5)의 어근 ‘조그마, 쪼그마, 조끄마, 쪼끄마’와 평행하게 부사 ‘조금, 쪼금, 조끔, 쪼끔’이 존재한다. ‘조그마’는 ‘자그마’의 ‘자’가 ‘조’로 모음만 교체된 관계이고, ‘조그마’에서 ‘조’의 자음을 경음화시켜 ‘쪼그마’를, ‘그’의 자음을 경음화시켜 ‘조끄마’를, ‘조그’의 두 자음을 모두 경음화시켜 ‘쪼끄마’를 형성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은 의미적으로 유의어 관계를 맺으면서 어감상 센 느낌이 ‘조그마 < 쪼그마/조끄마 < 쪼끄마’의 순서로 점점 커진다.

14)의 ‘기르스름’과 ‘가느스름’은 각각 어간 ‘길-’과 ‘가늘-’에 ‘-으스름’이 결합한 것이다. 그런데 ‘기르스름’에서는 어간 말음 ‘ㄹ’이 남아 있고 ‘가느스름’에는 같은 자격의 ‘ㄹ’이 탈락했다. ‘둥그스름, 기우스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현상은 ‘-스름하다’형 단어에서 ‘-스름’형 어근의 음절수가 4음절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어근 음절수와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길스름’이 아니라 ‘기르스름’으로, ‘가느스름’이 아니라 ‘가느스름’으로 형태가 선택되었을 것이다(이병근 1981).

(5) 모양형용사의 어근 파생 접미사

- 1) -(으)ㅅ + -드름: 기웃드름 cf. 가웃드름(‘가우스름’의 비표준어)
- 2) -듬: 기우듬, 가우듬, 끼우듬, 까우듬, 휘우듬, 비스듬(비듬),⁵⁵⁾ 배스듬(배듬)
- 3) -똥: 기우똥, 기우똥기우똥, 가우똥, 가우똥가우똥, 끼우똥, 끼우똥끼우똥, 까우똥, 까우똥까우똥 cf. 휘우똥(동사 어근)
- 4) -(으)ㄷ: 구불구불, 고불고불, 꼬불꼬불, 꾸불꾸불,⁵⁶⁾ 우불구불, 우불꾸불, 오불고불, 오불꼬불, 오글오글, 우글우글⁵⁷⁾
- 5) -(으)ㄹ + -앙/영: 고부랑, 고부랑고부랑, 구부렁, 구부렁구부렁, 꼬부랑, 꼬부랑꼬부랑, 꾸부렁, 꾸부렁꾸부렁, 우그렁, 우그렁우그렁, 오그랑, 오그랑오그랑⁵⁸⁾
- 6) -(으)ㄷ + -탕/텅: 고불탕, 고불탕고불탕, 구불텅, 구불텅구불텅, 꼬불탕, 꼬불탕꼬불탕, 꾸불텅, 꾸불텅꾸불텅
- 7) -(으)름: 버드름, 빠드름, 마드름, 빠드름
- 8) -(으)ㅁ: 비뚜름, 배뚜름, 뺨뚜름, 뺨뚜름, 버듬, 빠듬, 바듬, 뺨듬, 거우듬⁵⁹⁾
- 9) -(으)ㅅ: 둥긔, 둥긔, 고븨, 고븨고븨, 구븨, 구븨구븨, 꼬븨, 꼬븨꼬븨, 꾸븨, 꾸븨꾸븨, 기웃, 기웃기웃, 끼웃, 끼웃끼웃, 가웃, 가웃가웃, 까웃, 까웃까웃, 성깃, 성깃성깃, 상깃, 상깃상깃, 오긔, 오긔오긔, 우긔, 우긔우긔,

55) 어근 앞에 붙인 ‘~’은 『표준』에서 준말로 제시한 것을 표시한 것이다. 즉 ‘비스듬(비듬)’은 ‘비듬하다’가 ‘비스듬하다’의 준말로 『표준』에 제시되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고려대』에서는 ‘비스듬하다’와 ‘비듬하다’, ‘배스듬하다’와 ‘배듬하다’를 유의어로 처리했다.

56) ‘구불하다, 고불하다, 꾸불하다, 꼬불하다’ 등은 사전에 올라 있지 않다. 그러나 ‘구불/고불/꾸불/꼬불거리다’의 동사에 어근 ‘구불/고불/꾸불/꼬불’이 있어서 이 어근들을 반복시켜 형용사 ‘구불구불하다, 고불고불하다, 꼬불꼬불하다, 꾸불꾸불하다’의 어근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57) ‘오글다(북한어)’와 ‘우글다’는 ‘옥다’와 ‘웁다’의 어간에 ‘-ㄹ’이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이다(송정근 2007:88). 어간 ‘오글-’과 ‘우글-’이 그대로 반복되어 어근 ‘오글오글’과 ‘우글우글’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어간 ‘웁-’과 ‘웁-’에 어근 파생 접미사 ‘-(으)ㄷ’이 결합한 뒤 반복되어 어근 ‘오글오글’, ‘우글우글’이 형성되었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런데 ‘오글오글하다, 우글우글하다’는 사전에 있지만, ‘오글하다, 우글하다’는 사전에 없다.

58) 『표준』에서는 ‘오그랑오그랑하다, 우그렁우그렁하다’에 대해 각각 ‘오글오글하다, 우글우글하다’를 준말로 처리했으나 『고려대』에서는 참고어로만 처리했다.

59) ‘거우듬하다’는 “조금 기울어진 듯하다.”의 뜻인데 『표준』에서는 ‘거운하다’와 유의어로 설명하고 있고, 『고려대』에서는 ‘거우듬하다’가 ‘거운하다’의 본말이라고 했다. 이렇게 어근 파생 접미사가 더해진 어형과 그 이전 어형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이 두 사전에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설핏, 설핏설핏, 살핏, 살핏사핏

- 10) -(으)ㅅ + -(으)ㅁ: 구부슴, 고부슴, 꾸부슴, 꼬부슴⁶⁰⁾
- 11) -송: 곱송⁶¹⁾
- 12) -(으)스름: 동그스름, 동그스름, 똥그스름, 똥그스름, 구부스름, 고부스름,
꾸부스름, 꼬부스름, 기우스름, 가우스름, 끼우스름, 까우스름⁶²⁾
- 13) -슬: 곱슬, 곱슬, 곱슬곱슬, 곱슬곱슬, 곱슬곱슬, 곱슬곱슬⁶³⁾
- 14) -실: 둥실, 둥실둥실, 둥실, 둥실둥실
- 15) -웅: 부웅, 부웅부웅⁶⁴⁾
- 16) -(으)장/정: 고부장, 고부장고부장, 구부정, 구부정구부정, 꼬부장, 꼬부
장꼬부장, 꾸부정, 꾸부정꾸부정, 꼬장꼬장, 꾸정꾸정⁶⁵⁾

이상으로 모양형용사에서 분석되는 어근 파생 접미사 16개 유형과 그 어

60) 『표준』과 『고려대』에서는 이 네 어근의 ‘-하다’형 단어가 각각 ‘구부스름하다, 고부스름하다, 꾸부스름하다, 꼬부스름하다’의 준말이라고 했으나, 최대한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곱- + -(으)ㅅ + -(으)ㅁ’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61) ‘-송/송’은 ‘김송, 김송김송, 감송, 감송감송, 겹송, 겹송겹송, 감송, 감송감송, 어리송/아리송, 보송, 보송보송, 부송부송, 뽀송, 뽀송뽀송, 뽀송뽀송, 민송민송, 맨송맨송, 땀송땀송, 뉘송대송, 담송담송, 본송만송, 어루송어루송’ 등에서도 분석된다.

62) ‘동그스름’과 같은 ‘-스름’형 어근에 대해서 ‘동그스레’와 같은 ‘-스레’형 어근이 존재할 것으로 기대되나 사전에는 이런 어근들이 포함된 단어가 올라 있지 않다. 색채형용사에서는 대부분 ‘-스름’형에 대한 쪽으로 ‘-스레’형이 존재하는 것과 대비된다. 그런데 『표준』의 ‘작은곰등돌고래’에 대한 뜻풀이에서 “지느러미발은 작은 편이고 납작하고 동그스레하다”에 ‘동그스레하다’가 사용된 예가 하나 있다. 송정근(2007:87-89)에서는 ‘-(으)스름’을 ‘-(으)ㅅ’과 ‘-(으)름’이 결합한 접미사로 분석했다.

63) ‘곱신, 곱신곱신, 곱신곱신(북한어), 곱신, 곱신곱신, 곱실, 곱실곱실, 곱실, 곱실곱실, 곱실, 곱실곱실, 곱실, 곱실곱실, 곱적, 곱적곱적, 곱작, 곱작곱작, 곱적, 곱적곱적, 곱작, 곱작곱작’ 등은 의태동사형 어근이다. 이중에서 『우리말샘』에 북한어로 ‘곱실, 곱실곱실, 곱실곱실, 곱실곱실, 곱실곱실’은 ‘-하다’가 결합한 형용사로도 올라 있다.

64) 『표준』과 『고려대』에서 ‘부송부송하다’를 “부드럽다”와 “(얼굴이)뾰기 없이 조금 부은 듯하다.”의 뜻을 모두 지닌 다의어로 처리했으나 이 두 의미가 서로 관련이 없으므로 동음어로 처리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65) ‘꼬장꼬장, 꾸정꾸정’은 각각 ‘꽃꽃, 낫낫’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곧다, 굳다’의 어간이 중첩된 ‘*곧곧, *굳굳’이 어두 경음화와 종성의 ‘ㄷ’과 ‘ㅅ’의 표기 혼란으로 ‘꽃꽃, 낫낫’으로 표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송정근 2007:86). 각각 ‘꽃꽃, 낫낫’에서 ‘[꽃 + -장]+[꽃 + -장], [꽃 + -정]+[꽃 + -정]’으로 형성되었을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다. 지금으로서는 ‘꽃 + -장 > 꼬장’으로 ‘꽃’의 ‘ㅅ’이 탈락하는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꼬장꼬장하다’와 ‘꾸정꾸정하다’에 각각 대응하는 뜻을 지닌 ‘꼬장하다’와 ‘꾸정하다’는 없다.

근들을 살펴보았다. 어간이 어근으로서 단어 형성에 참여한 ‘동글하다, 동글하다’와 같은 예도 존재하고, 어간을 반복해 형성된 어근 ‘동글동글, 동글동글, 똥글똥글, 똥글똥글’ 등도 존재한다.

송정근(2007)에서 제시하지 않은 것은 ‘1) -(으)ㅅ + -드름, 7) -(으)름, 10) -(으)ㅅ + -(으)ㅁ, 11) -송, 13) -슬, 14) -실, 15) -웅’ 등이다. 한편 송정근(2007:89)에서는 ‘고부랑’을 ‘곱- + -(으)랑’으로 분석했는데, 5)와 같이 ‘곱- + -(으)ㄹ + -앙’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4)의 ‘고불고불, 구불구불’에서 ‘곱- + -(으)ㄹ’과 ‘곱- + -(으)ㄹ’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송정근(2007:89)에서 ‘3) -똥, 5) -(으)ㄹ + -앙, 6) -(으)ㄹ + -탕/텅, 16) -(으)장/정’은 주로 ‘뒤똥뒤똥, 구시렁구시렁, 게정게정, 몽탕몽탕’ 등의 의성의태어에서 발견되고 그러한 어근에서 이들은 분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이 접미사들은 감각형용사의 분석에서 보편적인 성격을 갖지 못하고 분석적 차원에서만 특정 단어에서 분석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접미사들과 아울러 ‘2) -듬’도 감각형용사에서 주로 분석되는 어근 파생 접미사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러한 관찰은 감각형용사의 어근 파생 접미사들을 잘 비교하고 검토한 결과이지만 ‘2) -듬, 3) -똥, 5) -(으)ㄹ + -앙, 6) -(으)ㄹ + -탕/텅, 16) -(으)장/정’이 감각형용사의 어근과 의성의태어근에서 공통적으로 분석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앞으로 더 고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2)와 3)에서 ‘기울다’에 대해 ‘기우듬하다’와 ‘기우똥하다’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휘다’에 대해 ‘휘우듬하다’와 ‘휘우똥하다’가 있다. 『표준』에 따르면 ‘기우듬하다, 휘우듬하다’는 형용사, ‘기우똥하다’는 자동사이면서 형용사이고, ‘휘우똥하다’는 자동사이다. ‘기울- + -듬 > 기우듬’과 ‘기울- + -똥 > 기우똥’에서는 어간 말음 ‘ㄹ’이 탈락한 것이고, ‘휘우듬, 휘우똥’은 이 ‘기우듬, 기우똥’의 제1음절을 ‘휘’로 바꾸어서 만든 어근으로 보인다. ‘기울다’와 ‘휘다’의 의미가 비슷하므로 ‘기울다’에서 파생된 ‘기우듬하다, 기우똥하다’에 대해 ‘휘우듬하다, 휘우똥하다’가 쉽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비

스듬’은 ‘비슷 + -듬 > 비스듬’으로 어근 말음 ‘ㅅ’이 ‘-듬’ 앞에서 탈락한 것이다. 이 현상은 한국어에서 ‘-듬하다’형 단어가 모두 ‘듬’ 앞에는 개음절이 온다는 형태적 특징에 일치시키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2) 미각형용사의 어근 파생 접미사

미각형용사에서 분석되는 어근 파생 접미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 미각형용사의 어근 파생 접미사

- 1) -곰/굼/콸/쿨/금/큼: 달곰, 새곰, 새곰새곰, 시곰, 시곰시곰, 달콤, 매콤, 새콤, 새콤새콤, 시콤, 시콤시콤, 달금, 시금, 시금시금, 새금, 새금새금, 달콤, 들콤, 매콤, 새콤, 새콤새콤, 시콤, 시콤시콤, 달곰새금, 달콤새금, 새콤달곰, 새금달곰, 달콤쌈싸래, 달콤쌈싸름, 달콤쌈쌀, 달콤삼삼, 달콤쌈쓸, 달콤쌈쓸, 시금쌈쓸, 시금쌈쓸, 매콤잡잘, 잡잘시금, 시금털털, 시금털털, 시금떨떨, 시금팁팁, 매콤달콤, 매콤새콤, 매콤칼칼
- 2) -근/큰: 달근, 알근, 알근알근, 얼근, 얼근얼근, 알큰, 얼큰, 알근달근, 얼근달근⁶⁶⁾
- 3) -(으)르: 씹쓸, 씹쌀, 잡잘, 찹잘, 찹잘, 찹잘⁶⁷⁾ 간간찹잘, 찹잘존든
- 4) -(으)르 + -에/애: 씹쓰레, 씹싸래, 잡싸래, 찹싸래
- 5) -(으)르 + -음: 씹쓰름, 씹싸름, 잡싸름, 찹조름,⁶⁸⁾ 찹찌름

66) ‘달근하다’는 사전에 없지만 ‘달근달근하다’는 “재미가 있고 마음에 들다.”라는 뜻으로 『표준』에 있다. ‘시근하다, 시근시근하다, 새근하다, 새근새근하다, 시큰하다, 시큰시큰하다, 새큰하다, 새큰새큰하다’ 등은 “관절 따위가 시다.”는 의미로 변화되었다. ‘시큰하다’와 형태적으로 가까운 ‘시큰둥하다, 시크름하다’는 심리적 의미로 확장되었다.

67) ‘쌈쌀’은 *쓰쓰 + -(으)르 > *뽀슬 > 씹쓸로 분석할 수 있다. 어간을 반복한 후에 ‘-(으)르’이 결합한 것이다. ‘잡잘’도 같은 방식으로 형성되었다.

68) ‘찹조름하다’는 ‘[찹조름하다]’로 발음하는데 ‘찹조름하다’로 적을 이유가 없고 ‘찹조름하다’가 올바른 표기라고 생각된다. ‘찹찌름하다’의 모음교체형이 ‘찹찌름하다’이고 ‘찹조름하다’도 ‘찹찌름하다’의 제2음절만 모음교체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씹쓰름하다/쌈쓰름하다’에 대해 ‘쌈쓰름하다’가 『전라북도 방언사전』에 실려 있는 것이 참고가 된다. 송정근(2007:160)에서도 발음과 단어 구조를 고려할 때 ‘찹조름하다’로 표기하여 ‘찹찌름하다, 찹찌름하다’와 평행하게 표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려대』에서는 ‘찹질하다’와 ‘찹잘하다’를 각각 ‘찹질하다’와 ‘찹잘하다’의 비

- 6) -굽/굽 + -으레: 달크무레, 새그무레, 시그무레, 새크무레, 시크무레⁶⁹⁾
 7) -(으)ㅁ: 매움, 매움, 떠름, 떨떠름, 텁터름⁷⁰⁾
 8) -(으)ㅅ: 비릿, 비릿비릿, 배릿, 배릿배릿, 아릿, 아릿아릿, 어릿, 어릿어릿,
 노릿, 누릿, 고릿, 구릿⁷¹⁾
 9) -지근: 시지근,⁷²⁾ 얼지근, 뉘지근, 쉬지근,⁷³⁾ 텁지근,⁷⁴⁾ 고답지근, 구답지근
 10) - 짹/짹: 비리짹/배리짹
 11) - 짹지근/짹지근/착지근/척지근: 달짹지근(ˆ달짜근),⁷⁵⁾ 들짹지근(ˆ들찌근),
 알짹지근(ˆ알찌근), 얼짹지근(ˆ얼찌근), 달착지근(ˆ달차근), 들척지근(ˆ들
 차근), 새척지근(ˆ새차근), 쉬척지근,⁷⁶⁾ 시척지근(ˆ시차근), 배리착지근(ˆ배
 리차근, ˆ배착지근, ˆ배차근), 비리척지근(ˆ비리차근, ˆ비척지근, ˆ비차근),⁷⁷⁾

표준어로 제시하고 있다.

- 69) 『우리말샘』에 북한어로 ‘고소무레하다’와 ‘쑤쓰무레하다’가 있는데, 그 어근은 각각 ‘고소 + -무레’, ‘쑤쓰 + -무레’로 분석된다. 이것은 6)의 ‘달크무레’형 어근들에 유추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형성된 어근으로는 표준어형 ‘뜨뜻무레’와 방언형 ‘비스무레, 통토무레, 통투무레, 뚱뚱무레’ 등이 더 있다.
- 70) ‘떨떠름’은 ‘뽇다’의 어간 반복형 ‘*뽇뽇’이 ‘떨떨’로 변환 뒤 ‘-(으)ㅁ’과 결합하여 형성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텁터름’은 ‘텁텁’이 ‘떨떠름’의 형태에 유추되어 ‘텁텁’의 제2음절 ‘텁’이 ‘터름’으로 변형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시금떨떨하다, 시금털털하다, 시금털털하다’ 등에서 ‘떨떨’과 ‘털털’이 분석되고 ‘떨떠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면 ‘털터름’도 있을 듯하나 사전에 없다.
- 71) 『우리말샘』에는 ‘고릿고릿하다, 구릿구릿하다, 코릿하다, 코릿코릿하다, 쿨릿하다, 쿨릿쿨릿하다’가 북한어로 올라 있다. 사전에 ‘구리다, 고리다, 쿠리다, 코리다’가 있고 ‘구릿하다, 고릿하다’도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북한 단어들도 남한에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72) ‘시지근하다’는 “음식 따위가 쉬어서 맛이 나 냄새가 조금 시금하다.”는 뜻이고 ‘시척지근하다’는 “음식이 쉬어서 비위에 거슬릴 정도로 맛이 나 냄새가 시다.”는 뜻이어서 ‘시지근하다’보다 ‘시척지근하다’가 더 강한 신맛을 나타낸다. 한편 사전에 ‘새지근하다’는 ‘새척지근하다’의 비표준어로 올라 있으나 단어 형태상으로는 ‘시지근하다’의 첫 음절이 모음교체된 단어로 이해할 수 있다.
- 73) ‘쉬지근하다’의 뜻은 “맛이나 냄새가 좀 쉰 듯하다.”이고 ‘쉬척지근하다’의 뜻은 “몹시 쉰 듯하다.”여서 ‘쉬지근하다’보다 ‘쉬척지근하다’의 쉰 상태가 더 강한 것으로 느껴진다.
- 74) ‘텁텁하다, 텁텁하다’ 등이 참고가 되고, 어근 ‘텁텁’의 ‘텁’에 ‘-지근’이 결합한 것으로 분석된다. ‘텁지근하다’는 사전에 올라 있지 않다.
- 75) ‘달찌근하다’는 ‘달찌근하다’의 경남방언으로 『우리말샘』에 들어 있다. 그런데 『표준』에서 준말로 제시한 이 어형들을 『고려대』에서는 유의어나 참고어로 제시했다.
- 76) 사전에 ‘쉬척지근하다’의 비표준어로 ‘쉬차근하다’가 있다.
- 77) 『표준』에서는 ‘배리차근하다’만을 ‘배리착지근하다’의 준말로, ‘비리차근하다’만을 ‘비리척지근하다’의 준말로 표시했으나 ‘배착지근하다’도 ‘배리착지근하다’의 준말로, ‘비척지근하다’도 ‘비리척지근하다’의 준말로 인정할 수 있다. 각각 ‘배리착지근하다’와 ‘비리척지근하다’에서 ‘리’가 탈락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배찌근하다’는 ‘배리찌근하다’와 ‘배착지근하다’의 준말로, ‘비찌근하다’는 ‘비리찌근하다’와 ‘비척지근하다’의 준말이라고 볼 수 있다.
- 『고려대』에서는 ‘배리착지근하다, 배리차근하다, 배착지근하다, 배차근하다’끼리, ‘비리척지근하다,

노리착지근([^]노리치근, [^]노착지근), 누리척지근([^]누리치근, [^]누척지근), 뉘
척지근

12) -캐/케: 매캐, 메케, 누케⁷⁸⁾

13) -틀: 비틀, 배틀

이상으로 미각형용사에서 분석되는 어근 파생 접미사 13개 유형과 그 어근들을 살펴보았다. 어간 반복에 의한 어근 ‘달달’⁷⁹⁾ 알알, 얼얼, 고리고리, 비리비리⁸⁰⁾ 등이 존재하지만, 어간이 어근으로서 단어 형성에 참여한 예는 찾을 수 없었다. 이 어휘장에서는 감각형용사의 대표적인 파생어근인 ‘-으스름’형 어근과 ‘-으스레’형 어근이 분석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이하다.

송정근(2007)에서 제시하지 않은 어근 파생 접미사는 ‘10) - 짹/쩍, 12) -캐/케, 13) -틀’ 등이다. 11)의 준말은 송정근(2007:216-217)에서 언급만 하고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11)의 예와 같이 준말이 많다는 것도 미각형용사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3) 촉각형용사의 어근 파생 접미사

촉각형용사에서 분석되는 어근 파생 접미사는 다음과 같다.⁸¹⁾

(7) 촉각형용사의 어근 파생 접미사

1) -근/큰: 시근, 시근시근, 새근, 새근새근, 시큰, 시큰시큰, 새큰, 새큰새큰,
말큰말큰⁸²⁾

비리치근하다, 비척지근하다, 비치근하다끼리 유의어로 처리했다.

78) 『표준』에 ‘알깨하다’가 ‘매캐하다’의 비표준어로, 『전라북도 방언사전』에 ‘알깨하다’가 ‘알싸하다’의 전북 방언으로 들어 있다.

79) ‘달달하다’는 ‘달다’의 강원, 경상, 충북 방언으로 『우리말샘』에 올라 있다. 지금은 서울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80) 『우리말샘』에 북한어로 ‘구리구리하다, 코리코리하다, 쿠리쿠리하다’가 있다. ‘퀴퀴하다, 껌껌하다’도 있는데 이들의 어근 ‘퀴퀴, 껌껌’은 각각 어근 ‘쿠리쿠리, 코리코리’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81) 촉각형용사 자료는 이지희(2007)가 참고할 만하다.

82) ‘말큰말큰하다’와 관련이 있는 ‘말큰하다, 물큰하다, 물큰물큰하다, 물큰다, 물큰물큰하다’는 『우리

- 2) -끈: 차끈, 차끈차끈, 따끈, 따끈따끈, 뜨끈, 뜨끈뜨끈⁸³⁾
- 3) -(으)ㄴ: 축추근, 축초근, 미끈, 미끈미끈, 매끈, 매끈매끈, 포근, 포근포근, 푸근, 푸근푸근, 빠근, 빠근, 후터분, 후터분,⁸⁴⁾ 가분, 가분가분, 거분, 거분거분, 가뿐, 가뿐가뿐, 거뿐, 거뿐거뿐
- 4) -ㄴ + -둥: 미끈둥, 미끈둥미끈둥, 매끈둥, 매끈둥매끈둥
- 5) -덩/당: 미끄덩, 미끄덩미끄덩, 매끄당, 매끄당매끄당
- 6) -ㄴ득: 진득, 진득진득, 찢득, 찢득찢득, 잔득, 잔득잔득, 찢득, 찢득찢득, 준득, 준득준득, 존득, 존득존득, 쥘득, 쥘득쥘득, 쏘득, 쏘득쏘득, 찌득, 찌득찌득
- 7) -(으)ㄹ: 노글노글, 누글누글⁸⁵⁾
- 8) -(으)ㄹ + -(으)ㅁ: 노그름, 누그름
- 9) -(으)ㄹ레: 물그레
- 10) -(으)ㅁ: 무름
- 11) -무레: 뜨뜻무레 cf. 노르무레, 고소무레, 비스무레, 똥똥무레, 흐리무레
- 12) -으르: 반드르르, 뻥드르르, 번드르르, 뻥드르르, 반지르르, 뻥지르르, 번지르르, 뻥지르르, 자르르, 짜르르, 지르르, 찌르르⁸⁶⁾
- 13) -(으)ㅅ: 나긋, 나긋나긋, 노긋, 노긋노긋, 누긋, 누긋누긋, 자릿, 자릿자릿, 저릿, 저릿저릿, 짜릿, 짜릿짜릿, 찌릿, 찌릿찌릿, 찌릿, 찌릿찌릿, 물긋, 물긋물긋, 시릿, 가붓, 가붓가붓, 거붓, 거붓거붓, 가뻗, 가뻗가뻗, 거뻗, 거뻗

말샘』에 북한어로 올라 있다. ‘무르다’에 ‘-썩, -캉/킹’이 결합하여 형성된 어근들의 체계를 생각한다면 ‘-끈’도 ‘말끈, 말끈말끈, 물끈, 물끈물끈, 물끈, 물끈물끈’이 모두 형성되어 사용될 만하다.

83) 송정근(2007:126-127)에서는 ‘뜨겁다, 뜨끈하다’에서 공시적으로 ‘뜨다’를 분석해 낼 수 없으므로 어근 파생 접미사 ‘-끈’을 분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뜨겁다, 뜨뜻하다, 뜨끔하다, 뜨끈하다, 뜨스하다’와 ‘따갑다, 따뜻하다, 따끔하다, 따끈하다, 따스하다’가 음운교체 관계이고, ‘뜨겁다, 따갑다’와 ‘뜨끈하다, 따끈하다’의 대응에 유추되어 ‘차갑다’에 대해서 ‘차끈하다’가 형성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송정근(2007:126)에서는 ‘차끈하다’가 어간 ‘차-’에 어근 파생 접미사 ‘-끈’이 결합하여 어근 ‘차끈’이 형성되었다고 분석했다.

84) ‘후텁하다’는 『고려대』에 올라 있고, ‘후텁하다’는 사전에 없다. ‘후텁다’가 기본어이고 이 단어에서 ‘후터분하다, 후터분하다, 후텁지근하다, 후텁지근하다’가 파생되었다.

85) ‘노글하다, 누글하다’는 사전에 없다. 이와 관련된 단어로 『우리말샘』에 북한어로 ‘누근하다, 누근누근하다, 노근하다, 노근노근하다’가 있다.

86) 『우리말샘』에 북한어로 ‘자르르자르르하다, 짜르르짜르르하다, 저르르하다, 저르르저르르하다, 찌르르하다, 찌르르찌르르하다’ 등이 더 있다.

- 거뿔거뿔, 질깃, 질깃질깃, 찢깃, 찢깃찢깃, 잘깃, 잘깃잘깃, 찢깃, 찢깃찢
 기, 졸깃, 졸깃졸깃, 쫄깃, 쫄깃쫄깃, 줄깃, 줄깃줄깃, 쫄깃, 쫄깃쫄깃
- 14) -숙: 몹숙
- 15) -숙 + -으레: 몹수그레⁸⁷⁾
- 16) -스그레: 몹스그레
- 17) -(으)스레: 물스그레, 멀스그레
- 18) -(으)스름: 물스스름, 멀스스름
- 19) -신/썸: 녹신, 녹신녹신, 녹신, 녹신녹신, 폭신, 폭신폭신, 폭신, 폭신폭신,
 꺾신, 꺾신꺾신, 꺾신, 꺾신꺾신, 물썸, 물썸물썸, 물썸, 물썸물썸, 말썸,
 말썸말썸
- 20) -실: 녹실, 녹실녹실, 녹실, 녹실녹실
- 21) -앙/영: 물렁, 물렁물렁, 물랑, 물랑물랑, 말랑, 말랑말랑
- 22) -에: 반드레, 뻔드레, 번드레, 뻔드레, 반지레, 뻔지레, 번지레, 뻔지레, 보
 드레, 부드레
- 23) -작/적: 끈적, 끈적끈적, 간작간작
- 24) -작지근/적지근: 뻣적지근(뻣지근), 뻣작지근(뻣지근) (cf. 미적지근^미
 지근, 매작지근^매지근)
- 25) -지근: 누지근,⁸⁸⁾ 숙지근, 후딤지근, 후딤지근, 축축지근, 축축지근, 뻣지
 근, 뻣지근 (cf. 미지근, 매지근, 뜨뜻미지근)⁸⁹⁾

87) '몹수그레하다'는 『고려대』에 실려 있다. 그런데 관련어로 '몹스그레하다'는 제시하지 않았고, 작은 말로 '맑스그레하다'를 제시했다. '몹수그레하다'는 "조금 몹다."는 뜻이고 '맑스그레하다'는 "조금 맑다."는 뜻이어서 의미가 각각 촉각과 시각의 다른 차원이므로 이 두 단어는 큰말과 작은말의 관계라고 하기 어렵다. '늪다, 늪숙하다, 늪수그레하다'가 '몹다, 몹숙하다, 몹수그레하다'와 평행한 단어쌍을 이루고 있다.

88) '늪다'에서 파생된 단어로 '늪지다, 늪지근하다, 누지다, 누지근하다'가 있다. '늪지다, 늪지근하다'는 "기세, 성격,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다/부드럽다."는 뜻이고, '누지다, 누지근하다'는 "촉촉한 기운이 있다."의 뜻으로 의미가 분화되었다. '늪다'의 어간 '늪-'에 접사 '-지다'가 결합해서 '늪지다'와 '누지다(< 늪지다)'가 형성되었고, '늪-'에 '-지근'이 결합해서 어근 '늪지근'과 '누지근(< 늪지근)'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89) 송정근(2007:125)에서는 '미지근, 매지근'은 '-지근'이 분석되기 어려운 단일어근으로 보았는데, 그 이유는 '-지근'을 분석했을 때 남은 부분 '미, 매'가 무엇인지 그 정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말샘』에 '뭉곤'이 '미지근하다'의 옛말로 등재되어 있다. 어근 '뭉곤'이 형태가 변하여 '미지근'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미적지근, 매작지근'은 다른 '-척지근/쩍지근'형 어근(시

- 26) -직: 되직, 묵직, 묵직묵직, 묵직, 갸직, 갸직갸직
 27) -진: 녹진, 녹진녹진, 녹진, 녹진녹진⁹⁰⁾
 28) -척/착: 질척, 질척질척, 잘착, 잘착잘착
 29) -카닥/커덕: 질커덕, 질커덕질커덕, 잘카닥, 잘카닥잘카닥
 30) -각/컹: 질컹, 질컹질컹, 잘각, 잘각잘각⁹¹⁾
 31) -강/콩: 물콩, 물콩물콩, 물강, 물강물강, 말강, 말강말강⁹²⁾
 32) -바닥/버덕/파닥/퍼덕: 잘바닥, 잘바닥잘바닥, 질버덕, 질버덕질버덕, 잘파닥, 잘파닥잘파닥, 질퍼덕, 질퍼덕질퍼덕
 33) -박/벽/팍/퍽: 잘박, 잘박잘박, 질벽, 질벽질벽, 잘팍, 잘팍잘팍, 질퍽, 질퍽질퍽

이상으로 촉각형용사에서 분석되는 어근 파생 접미사 33개 유형과 그것에 의해 형성된 어근을 살펴보았다. 이 어휘장에서도 어간의 어근화에 의한 단어 ‘거칠하다’와 같은 단어가 존재하고, 어간의 반복에 의해 형성된 어근 ‘축축, 축축, 녹녹, 녹녹, 거칠거칠, 꺼칠꺼칠, 가칠가칠, 까칠까칠, 저리저리, 자리자리’ 등이 분석된다.

29)와 30), 32)와 33)은 확장형(는말)과 기본형(본말)의 관계인데,⁹³⁾ 사전에서는 이들을 본말과 준말의 관계로 설명했다. 32)와 33)은 ‘ㅂ’과 ‘ㅍ’의 자음교체 관계를 맺고 있다. ‘질퍽’이 ‘질벽’보다 더 거센 느낌을 주고, 따라서 ‘질퍽’이 ‘질벽’보다 물기가 많은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된다.

송정근(2007)에서 제시하지 않은 어근 파생 접미사는 ‘3) -(으)ㄴ, 6) -ㄴ

지근:시척지근, 뉘지근:뉘척지근, 쉬지근:쉬척지근, 들찌근:들찍지근, 알찌근:알찍지근)에 유추되어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90) 이들에 대응하는 단어로 『우리말샘』에 북한어로 ‘녹질하다, 녹질녹질하다, 녹질하다, 녹질녹질하다’가 있다.

91) 『우리말샘』에 북한어로 ‘물컹하다, 물컹물컹하다, 물각하다, 물각물각하다, 물커덕하다, 물커덕물커덕하다, 물카닥하다, 물카닥물카닥하다’가 있다.

92) 『우리말샘』에 북한어로 ‘물커덩하다, 물커덩물커덩하다, 물카당하다, 물카당물카당하다, 멀콩하다, 멀콩멀콩하다’가 있다.

93) ‘는말’은 “본말의 형태가 늘어난 말”이라는 뜻이고, ‘준말’에 상대되는 용어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다.

득, 7) -(으)르, 8) -(으)르 + -(으)ㅁ, 9) -(으)레, 14) -숙, 15) -숙 + -으레, 17) -(으)스레, 18) -(으)스름, 23) -작/적, 24) -작지근/적지근, 32) -바닥/버덕, 33) -박/벽' 등이다.

4) 청각형용사의 어근 파생 접미사

청각형용사는 그 수가 많지 않다. 송정근(2007:164-170)에서는 한국어에 순전히 청각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없다고 하면서 ‘시끄럽다, 조용하다, 고요하다’의 셋은 청각과 관련된 형용사로 인정했다. 송정근(2018:37)에서는 다음 (8)에 보이는 다양한 청각형용사들에 대해 이들이 특정한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감각 기관을 통해 인지된 구체적인 감각을 표현한 단어라기보다는 청각과 관련된 상황을 나타내거나 그 상황에 대한 평가에 가까운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청각형용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어떤 소리가 들기에 시끄럽고 크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들은 기본적인 의미가 청각적 의미이므로 청각형용사로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청각형용사로 다룰 만한 것으로 아래 (8)의 예들이 있는데, 대부분 (8-1)의 ‘시끄럽게 떠드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과 (8-2)와 같이 ‘사람 목소리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8-3)의 ‘수선스러운 상태’나 (8-4)의 ‘조용한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8) 청각형용사의 예

- 1) 시끄럽게 떠드는 상태: 떠들썩하다, 따들썩하다, 들썩하다, 뜯썩하다, 떠지꺨하다,⁹⁴⁾ 왁자지껄하다, 왁자글하다, 왁작하다, 왁작왁작하다, 왁자그르르하다⁹⁵⁾ 왁자르르하다, 워저그르르하다, 짹자그르르하다⁹⁵⁾ 왁

94) ‘떠지꺨하다’는 “어쨌든 큰 소리로 지껄여 떠들썩하다.” 정도의 의미인데 어근 ‘떠지꺨’은 ‘떠-지꺨’로 더 분석할 수 있다. 이때 ‘떠’는 ‘떠들다, 떠들썩하다’의 ‘떠’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95) ‘자그르르하다’는 “적은 양의 걸쭉한 액체나 기름 따위가 갑자기 끓어오르는 소리가 나다.”라는 뜻의 동사이다. ‘와그르르하다, 위그르르하다’도 동사의 의미가 강하고 “어수선하다”는 뜻으로 형용사로 쓰이기도 한다. 이들과 관련해서 『우리말샘』에 북한어로 ‘왁자그르르하다, 짹자그르르하다’가 더

- 자하다, 왜자하다, 시끄럽다, 듣그럽다,⁹⁶⁾ 자그럽다,⁹⁷⁾ 시끌시끌하다, 시글시글하다, 시끌벅적하다, 시끌뻘적지근하다, 시끌벼글하다⁹⁸⁾
- 2) 사람 목소리의 상태: 걸걸하다, 꺄꺄하다, 칼칼하다, 꺄꺄하다,⁹⁹⁾ 꺄세다,¹⁰⁰⁾ 깔깔하다, 꺄꺄하다, 카랑카랑하다, 카랑하다, 까랑까랑하다, 짜랑짜랑하다, 찌렁찌렁하다, 찌렁찌렁하다, 자랑자랑하다, 저렁저렁하다, 짜랑하다, 찌렁하다, 자랑하다, 저렁하다, 쉬지근하다, 새되다, 쇠지다, 간드러지다, 건드러지다, 산드러지다, 재갈하다, 재갈하다, 지꺄하다, 자냥스럽다,¹⁰¹⁾ 우렁하다, 우렁우렁하다, 우렁차다, 웅글다,¹⁰²⁾ 찡찡하다
- 3) 수선스러운 상태: 수선하다, 수선스럽다, 수선수선하다, 수수하다¹⁰³⁾
- 4) 조용한 상태: 조용하다, 조용조용하다

앞에서 살펴본 다른 감각형용사 어휘장과 비교해 보면 청각형용사 어휘가 훨씬 적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송정근(2007, 2018)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에서 청각 표현은 대부분 의성어근에 의해 부사나 동사로 단어화되기 때문이다. 청각형용사 어휘장에는 어간이 어근으로 단어 형성에 참여한 예는 없고, 어간의 반복에 의해 형성된 어근은 ‘걸걸하다’의 ‘걸걸’이 있다. 이것은 ‘말이/입이 걸다’라고 하는 ‘걸다’의 어간이 반복된 것이다. ‘꺄꺄하다’와 ‘칼칼하다’는 ‘걸걸하다’에서 음운교체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있다.

96) 듣그럽다: 듣기 싫게 떠들썩하다. 예: 까치가 듣그럽게 운다.

97) 자그럽다: 날카로운 소리가 신경을 자극하여 몹시 듣기에 거북하다. 예: 자그러운 꿩소리.

98) ‘시끌벼글하다’는 『고려대』에는 표준어로 올라 있고, 『전라북도 방언사전』에도 올라 있다. 『전라북도 방언사전』에서는 ‘시끌시끌’의 두 번째 ‘시’가 ‘벼’로 음상을 바꿔 형성된 것으로 설명했다.

99) 꺄꺄하다: 사람의 목소리나 성질 따위가 역세고 거칠어서 부드러운 느낌이 없다. 예: 그는 흥분해서 목소리도 꺄꺄하게 쉬어 있었다.

100) 꺄세다: 1. 매우 단단하고 힘이 세다. 2. 목소리가 조금 윈 듯하며 매우 거칠고 탁하다. ‘꺄세다’는 ‘꺄꺄하다’의 어근 ‘꺄꺄’의 ‘꺄’과 ‘세다’로 분석된다.

101) 자냥스럽다: 재갈거리는 소리가 듣기에 푹푹한 데가 있다. 예: 문정은 아내의 말이 늘 자냥스러워서 좋았다. 남의 인늬은이들에 비하여 약간 수다스러운 것이 병이었으나... 출처: 이문구, 『산 너머 남촌』

102) 웅글다: 소리가 깊고 굵다. 예: 웅근 메아리 소리.

103) 수수하다: 1. 시끄럽고 떠들썩하여 뒤숭숭하고 정신이 어지럽다. 2. 소문이나 평판이 떠들썩하게 많다. (예문은 없음.)

(8)에서 분석할 수 있는 어근 파생 접미사는 아래 (9)에서와 같이 3개 정도가 있다.

(9) 청각형용사의 어근 파생 접미사

- 1) -씩/작: 떠들썩, 따들썩, 들썩, 뜰썩
- 2) -지근: 쉬지근
- 3) -엉/양: 우렁, 우렁우렁, 카랑, 카랑카랑, 꺼렁꺼렁, 까랑까랑

‘쉬지근하다’는 동사 ‘쉬다(“목청에 탈이 나서 목소리가 거칠고 맑지 않게 되다.”)’에 어근 파생 접미사 ‘-지근’이 결합하여 어근 ‘쉬지근’이 형성된 것이다. ‘칼칼하다’와 ‘카랑카랑하다’는 어근 ‘칼칼’이 ‘카랑카랑’으로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 ‘카랑’을 ‘칼’과 ‘-랑’으로 분석할 수 있다. ‘우렁하다’의 어근 ‘우렁’은 동사 ‘울다’와 ‘-엉’으로 분석된다.

‘왁자글하다’나 ‘왁자지껄하다’의 ‘왁’은 ‘와글와글하다, 와글거리다’의 ‘와글’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왁자글하다’와 ‘왁자하다’를 비교하면 ‘왁자’는 ‘왁자글’에서 ‘글’이 떨어져 나가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왁작하다’의 어근 ‘왁작’은 ‘와글’이 줄어든 ‘왁’과 ‘자글’이 줄어든 ‘작’이 결합한 것으로 이해된다. ‘자그럽다’는 ‘자글자글하다, 자글거리다’의 어근 ‘자글’과 접미사 ‘-럽다’로 분석된다. ‘왁자지껄하다’의 ‘왁자지껄’은 ‘왁자하다’의 어근 ‘왁자’와 ‘지껄지껄하다, 지껄거리다’의 어근 ‘지껄’이 결합된 것이다.

‘듣그럽다’는 특이한 어형인데 ‘듣-’과 ‘-그럽다’가 결합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듣기 싫게 떠들썩하다.”인데 ‘시끄럽다’와 유의어라고 할 수 있다. ‘시끄럽다’의 ‘시’를 ‘듣’으로 대체하여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듣그럽다’의 발음이 [듣끄럽다]인 것을 감안하면 ‘듣’을 제외한 발음이 ‘시끄럽다’와 같아서 “듣기에 시끄럽다.”라는 뜻의 단어로 ‘듣그럽다’를 형성했을 수도 있다.

3. 감각형용사의 어근 형성 방법

이제 감각형용사의 어근 형성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자. 감각형용사의 어근이 형성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파생, 합성, 내적 변화, 어간의 어근화, 유추 등을 들 수 있다.¹⁰⁴⁾

1) 파생

2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감각형용사의 어근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파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어근을 파생시키는 접사에는 접미사만 있고 접두사는 관찰되지 않는다. 송정근(2007:127-128)에서는 ‘실미지근하다’에서 분석되는 ‘실-’이 ‘미지근하다’와 결합한 것(실-미지근하다)이 아니라 어근 ‘미지근’과 직접 결합한 것(실미지근-하다)으로 보았다. 그 이유는 ‘실-’이 ‘실개천, 실구름’의 ‘개천, 구름’ 등과 같은 명사와 ‘미지근하다’와 같은 형용사에 결합한다고 설명하는 것보다, ‘실개천’ 같은 명사와 ‘미지근’과 같은 어근에 결합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접두사 ‘실-’의 결합 어기에 대한 제약을 더 부담없이 설명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각형용사의 어근을 파생하는 접사는 모두 접미사뿐이었고 접두사는 없었다. 만약 ‘실-’이 단어에 결합하는 접두사가 아니라 어근에 결합하는 접두사라면 그 유일한 예가 된다. 이 점이 ‘실-’을 어근 파생 접두사로 인정하는 것을 망설이게 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새까맣다, 새붉다, 시푸르뎡뎡하다, 시푸르다’와 ‘까맣다, 붉다,

104) 한 심사자는 파생, 합성, 내적 변화, 어간의 어근화, 유추의 다섯 가지 방식이 동일한 층위에서 다루어질 것이 아니므로 구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원용(2007:116)에서도 국어의 단어형성 체계를 논하면서 “유추와 규칙은 어떤 문법 과정 즉 일종의 정보 처리 과정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러한 과정을 표시하는 방법을 의미하기도 하는 반면 합성과 파생은 단어의 내적 구조에 따른 단어 분류법의 결과물을 형성의 관점으로 변환한 용어”라고 구별하고 합성, 파생, 유추를 같은 층위에서 다루면 그러한 차이를 회색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단어 형성의 기제보다는 단어 형성의 방법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유추를 합성이나 파생과 같은 단어 형성 방식의 하나로써 이해하고자 한다. 한편 최형용(2016:316-331)에서는 국어의 단어 형성 방법을 결합, 대치, 축약이나 탈락, 영변화의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푸르텡텡하다, 푸르다'의 관계에서 '새/시-'는 어근이 아니라 단어에 결합했다고 분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홍석준 2015:155-161)¹⁰⁵⁾ '실-'도 이 '새/시-'와 같이 단어에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접두사 '덧-'이나 '헛-'은 '덧버선, 덧바르다, 헛수고, 헛디디다'에서 보듯이 명사와 동사에도 결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이 명사와 형용사에 결합된다고 분석한다고 해서 '실-'이 결합하는 어기의 제약을 설명하는 데에 큰 부담을 주는 것 같지는 않다.

파생어근이 형성되는 방식은 다음 4가지가 있다.

(10) 형용사나 동사의 어간 + 어근 파생 접미사

- 1) 검- + -(으)ㅅ → 거뭇
- 2) 높- + -직 → 높직
- 3) 시- + -금 → 시금
- 4) 기울- + -(으)ㅅ → 기웃

(11) 파생어근 + 어근 파생 접미사

- 1) 길쭉(길-쭉) + -(으)스름 → 길쭉스름
- 2) 넓적(넓-적) + -(으)스름 → 넓적스름
- 3) 시금(시-금) + -(으)레 → 시그무레
- 4) 씹쓸(씹쓰-(으)르) + -에 → 씹쓰레

(12) 어간의 반복 + 어근 파생 접미사

- 1) 씹쓸(〈 *씹씹〉) + -(으)르 → 씹쓸
- 2) 짹짹(〈 *짹짹〉) + -(으)르 → 짹짹
- 3) 떨떨(〈 *떨떨〉) + -(으)르 → 떨떠름

105) 『표준』에서는 '실미지근-하다'로 분석했고, 『고려대』에서는 '실미지근'을 어근으로 분석했지만 이들은 분석 차원에서 본 단어 구조이고 단어 형성 관점에서는 '실-미지근하다'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금성관 국어대사전』에서는 '실- + 미지근하다'로 분석했다는 점이 참고가 된다.

(13) 어근의 축소형 + 어근 파생 접미사

- 1) 고탑탑(< 고리탑탑) + -지근 → 고탑지근
- 2) 끈(< 끈끈) + -적 → 끈적

위 4가지 방식 중에서 (10)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10)과 같은 방식으로 형성된 파생어근 중에서는 (11)과 같이 어근 파생 접미사가 한 개 더 결합하는 것들도 있다. 그러나 어근 파생 접미사가 3개 이상 분석되는 예는 없는 것 같다.

(12)는 어간을 반복시켜 형성된 합성어근에 어근 파생 접미사가 결합한 것이다. ‘쑥쑥’은 ‘쓰다’의 중세국어 시기 어형 ‘쓰-’가 반복된 ‘*쓰쓰-’에 어근 파생 접미사 ‘-(으)르’이 결합한 것이 형태가 변하여 오늘날 ‘쑥쑥’로 남았다(송철의 1992:292, 송정근 2007:142). ‘짹짹’과 ‘떨떠름’도 이와 마찬가지로 어간의 반복 후 어근 파생 접미사가 결합된 방식으로 형성되었다.

(13)은 어근이 축소된 형태에 어근 파생 접미사가 결합하는 경우이다. ‘고탑지근’은 먼저 어근 ‘고탑’과 접미사 ‘-지근’으로 분석되는데, 이때 ‘고탑’은 ‘고탑하다’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지만 ‘고리탑탑하다’의 어근 ‘고리탑탑’이 줄어들어서 형성된 ‘고탑탑하다’의 어근 ‘고탑탑’에서 ‘탑’이 하나 떨어져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끈적’도 ‘끈 + -적’으로 분석되는데 이때 ‘끈’은 ‘끈끈하다’의 어근 ‘끈끈’에서 ‘끈’이 하나 떨어진 것으로서 어근의 자격을 띤다.

2) 합성

두 개의 어근이 결합하여 새 어근을 형성하는 방법으로는 다음 3가지가 있다.

(14) 동일 어근의 반복

거뿔거뿔, 넓적넓적, 고부랑고부랑, 새콤새콤

(15) 다른 두 어근의 결합

거머누르께, 새콤달콤, 뜨뜻미지근, 시끌벅적

(16) 형용사나 동사의 어간 반복

달다:달달, 걸다:걸걸, 노르다:놀놀, 동글다:동글동글, 거칠다:거칠거칠, 시들다:시들시들, 비뚤다:비뚤비뚤, 배똥다:배똥배똥, 아리다:아리아리~알알, 비리다:비리비리, 저리다:저리저리, 눅다:눅눅, 축다:축축

(14)처럼 하나의 어근을 반복시키거나, (15)와 같이 다른 어근 두 개를 합치거나, (16)과 같이 형용사나 동사의 어간을 반복시켜서 어근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 (14)에 의해 형성된 합성어근이 가장 많다. ‘거뭇’과 같이 2음절로 된 어근은 대부분 반복을 통해서 ‘거뭇거뭇’처럼 4음절 어근을 쉽게 형성할 수 있다. ‘고부랑’과 같이 3음절로 된 어근 중에서는 일부만 반복을 통해서 ‘고부랑고부랑’처럼 합성어근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런데 간혹 ‘검실검실, 검적검적, 누렁누렁’과 같이 단독형 ‘검실, 검적, 누렁’은 존재하지 않지만 반복형만 존재하는 어근도 있다.

(16)에서 ‘시들다’는 자동사이지만 그 어간이 반복돼서 형용사인 ‘시들시들하다’의 어근이 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 유형에 속하는 단어들의 의미는 조금씩 다르다. ‘동글동글하다, 거칠거칠하다, 시들시들하다’는 “꽤 그러한 느낌이 있다.” 정도의 의미이고, ‘놀놀하다, 아리아리하다~알알하다, 눅눅하다, 축축하다’는 “조금 그러한 느낌이 있다.” 정도의 의미를 띤다. 반복에 의해서 의미의 강화만이 아니라 의미의 약화도 일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내적 변화

감각형용사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활발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내적 변화인데, 주로 어근에서 이루어진다. 기본이 되는 어근의 자음이나 모음을 교체하거나, 어근의 음절수를 늘리거나 줄여서 새로운 어근을 만들 수 있고,

결과적으로 새 단어를 만들게 된다.

(17) 어근의 음운교체

- 1) 불긔, 불긔, 빨긔, 빨긔 cf. 불긔불긔~울긔불긔
- 2) 길쭉길쭉, 갈쭉갈쭉, 갸쭉갸쭉, 깰쭉깰쭉
- 3) 노르끄레, 누르끄레, 뇌르끄레, 뉘르끄레, 노리끼리, 누리끼리
- 4) 누척지근, 뉘척지근

(18) 어근의 확대

- 1) 질척~질커덕, 질퍽~질퍼덕 cf. 덜척~덜커덕, 철벅~철버덕
- 2) 해끔~해끄름, 버듬~버드름
- 3) 아득~아드막, 높직~높지막, 큼직~큼지막 cf. 아툼~아트막, 길쭈름~길쭈막
- 4) 번질~번지르르 cf. 빙글~빙그르르, 와글~와그르르

(19) 어근의 축소

- 1) 거머무트름: 거무트름¹⁰⁶⁾
- 2) 거머번지르: 거머번질¹⁰⁷⁾
- 3) 누리척지근: 누척지근/누리치근¹⁰⁸⁾
비리척지근: 비척지근/비리치근: 비치근¹⁰⁹⁾
- 4) 달쭈지근: 달쭈근, 들쭈지근: 들쭈근, 알쭈지근: 알쭈근, 얼쭈지근: 얼쭈근, 달
착지근: 달차근, 들척지근: 들치근, 새척지근: 새치근, 시척지근: 시치근
- 5) 고탑지근(< 고리탑탑 + -지근), 끈적(< 끈끈 + -적)

106) 『표준』에서는 ‘거머무트름’과 ‘거무트름’을 본말과 준말로, 『고려대』에서는 유의어로 제시했다.

107) 『표준』과 『고려대』 모두 ‘거머번지르’와 ‘거머번질’을 본말과 준말로 제시했다.

108) 『표준』에서는 ‘누리척지근’과 ‘누척지근/누리치근’의 관계를 본말과 준말로 제시했는데 『고려대』에서는 이 셋을 유의어로 제시했다.

109) 『표준』에서는 ‘비리치근’만 ‘비리척지근’의 준말로, ‘비척지근, 비치근’은 ‘비리척지근’의 유의어로 제시했고, 『고려대』는 이들을 유의어로만 처리했다.

(17-1)에서 ‘불긔’의 제1음절 모음을 교체하여 ‘불긔’이 형성되었고, ‘불긔’의 제1음절 초성이 경음으로 교체되어 ‘뿔긔’를 형성한 뒤, 제1음절 모음을 교체하여 ‘뿔긔’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불긔:불긔’과 ‘뿔긔:뿔긔’의 모음 대립쌍, ‘불긔:뿔긔’과 ‘불긔:뿔긔’의 자음 대립쌍을 지어서 작은 의미 차이를 드러내게 된다. (17-2)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볼 수 있다.

(17-3)에서는 ‘노르끄레:뇌르끄레:노리끼리’와 ‘누르끄레:뇌르끄레:누리끼리’로 대립쌍을 지을 수 있다. ‘노르끄레’의 제1음절 모음을 전설고모음화시켜 ‘뇌르끄레’로 변화시킴으로써 어근의 제1음절 ‘노’(양성모음)와 ‘뇌’(음성모음)의 대립으로 ‘뇌르끄레’가 ‘노르끄레’보다 조금 더 어두운(명도가 낮은) 노란색을 뜻하게 된다(정인호 2013). ‘노리끼리’는 ‘노르끄레’의 제2, 3, 4음절의 모음을 전설고모음화시켜서 형성된 것인데, 『표준』이나 『고려대』에 따르면 이 두 어근의 의미는 거의 같다. 그러나 전설모음으로 이루어진 ‘리끼리’가 그렇지 않은 ‘르끄레’보다 더 강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노르끄레’보다 ‘노리끼리’가 더 어둡거나 짙은 노란색을 뜻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17-4)의 ‘뉘척지근’도 ‘누척지근’의 제1음절의 모음 ‘우’가 ‘위’로 전설고모음화한 것인데 그 두 어근의 의미는 비슷하고 ‘뉘척지근’이 ‘누척지근’보다 어감이 조금 더 강하다. 그래서 ‘뉘척지근’이 ‘누척지근’보다 조금 더 진한 누린내를 뜻하게 된다. 기본이 되는 어근에 비해 전설고모음화된 어근이 어감상 조금 더 강해지면서 기본 의미는 같지만 그 의미의 정도성이 더 강한 것으로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

(18-1)에서 보인 ‘질컹’과 ‘질커덕’의 관계는 ‘질컹’이 기본 어근이고 ‘질커덕’은 ‘질컹’의 제2음절 ‘컹’이 ‘커덕’으로 늘어난 것이다. ‘컹’의 ‘커’와 ‘ㄱ’ 사이에 ‘더’가 첨가되었다. ‘질컹’과 ‘질커덕’의 의미는 별 차이가 없고 같은 것이라고 생각된다.¹¹⁰⁾ 의태어근 ‘덜컹~덜커덕, 철벽~철버덕’에서도 마찬가지로

110) 『표준』에서는 ‘질컹하다’가 본말이고 ‘질커덕하다’는 그 준말로 설명했고, 『고려대』에서는 이 두 단어를 서로 참고어로 제시했다. 두 사전은 ‘질컹하다’와 ‘질커덕하다’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했다. 이문규(1996:98-107)에서는 ‘덜컹~덜커덕, 철벽~철버덕’ 등을 포함하여 의성의태어의 형태 확장을 다루고 있어서 참고가 된다. 김창섭(2014:211-212)에서는 이러한 의태어근의 확대

지 방법으로 어근이 확대된다. (18-2)의 ‘해끄름하다’는 “(얼굴이)회고 깨끗하다.”라는 뜻이어서 ‘해끄름’의 ‘끄름’은 ‘거무끄름, 노르끄름’의 ‘끄름’과 같은 것이 아니고, ‘해끔’에서 ‘해끄름’으로 음절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생각된다. ‘해끔’과 ‘해끄름’의 의미는 거의 같다. (18-3)의 ‘아드막, 높지막, 큼지막’은 (18-1)의 예와 같이 어근의 제2음절에서 중성과 종성 사이에 ‘ㅁ’가 첨가된 것이다.¹¹¹⁾ 한편 ‘아트막, 길쭉막’은 앞의 예들과는 다르게 ‘아툼-악, 길쭈-악’으로 어근 파생 접미사 ‘-악’을 분석할 수 있다. ‘아드막, 높지막, 큼지막’과 ‘아트막, 길쭉막’의 구조가 다르지만 결국 ‘막’으로 끝나는 3음절 어형을 갖추고 비슷한 의미를 띠게 되었다. (18-3)의 기본형보다 확대형이 의미상으로는 그 정도성이 조금 더 약함을 뜻한다. (18-4)는 ‘번질번질하다’의 ‘번질번질’에서 분석되는 어근 ‘번질’에서 제2음절 ‘질’이 ‘지르르’로 확대된 것이다. ‘번지르르’의 의미는 ‘번질번질’과 같은데, ‘번질’의 ‘질’을 ‘지르르’로 늘림으로써 ‘번질’을 반복시킨 ‘번질번질’의 의미와 같아졌다. 의태어근 ‘빙글~빙그르르, 와글~와그르르’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어근이 확대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18)과는 반대로 어근이 축소되어 새 어근을 형성한 예로 (19)와 같은 것들이 있다. (19)의 예들은 본말과 준말 사이에 의미 변화가 없이 유의관계를 맺고 있다. (19-1)의 ‘거무트름’은 ‘거머무트름’의 제2음절 ‘머’를 탈락시켜 만들어진 축소형이다. ‘-하다’로 끝나는 색채형용사들 중에서 ‘-하다’ 앞에

는 “품사 변화 등의 문법적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기어의 단순한 동작이 어떤 변화가 있는 동작으로 바뀌는 의미 변화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기어(基語)’는 본말을 가리킨다.

111) 한 심사자는 ‘질꺨’와 ‘질꺨막’에 대해 기존 사전에서는 이들의 관계를 준말과 본말로 처리했는데 본고에서는 본말과 준말로 재정립하는 이유에 대해 근거를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형태적으로 비슷하고 의미적으로도 별 차이가 없는 이런 단어쌍이나 어근쌍에 대해 어느 쪽이 본말이고 어느 쪽이 준말이거나 준말인지를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문규(1996:106-107)에서는 2음절 상징어 중에서 약 70%는 3음절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때굴’(2음절)과 ‘뽕때굴’(3음절)처럼 짝을 이루는 단어쌍을 만약 ‘뽕때굴’ > 때굴’로 설명한다면 2음절 상징어의 약 30%는 3음절형으로부터 축약된 것이고 나머지 70%는 그 자체만 있는 ‘비도출’ 어형으로 봐야 하지만, ‘때굴’ > 뽕때굴’로 설명한다면 2음절 상징어 중 일부인 30%가 3음절형으로 확장된다고 설명할 수 있으므로 후자가 더 간결한 설명이라고 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며 2음절형과 3음절형을 함께 가진 상징어들은 2음절형을 본말로, 3음절형을 그 2음절형에서 확장된 어형, 즉 준말로 보고자 한다.

오는 어근의 음절수로 4음절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런 경향에 이끌려 음절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생각된다. (19-2)의 ‘거머번지르’는 ‘거머하다’의 어근 ‘거머’와 ‘번지르르하다’의 어근 ‘번지르르’가 결합하여 형성된 ‘거머번지르르’에서 ‘르’가 하나 탈락하여 ‘거머번지르’가 된 것이다. 실제로는 어근 ‘거머번지르르’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색채형용사 어휘장에서 ‘-하다’ 앞에 오는 어근의 음절수가 대부분이 4음절이고 길어야 5음절이라는 경향에 이끌린 것으로 보인다.

(19-3)의 ‘누리척지근’은 ‘누리척지근’에서 ‘리’가 탈락한 것이고, ‘누리치근’은 ‘누리척지근’의 ‘척지’가 ‘치’로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각형용사 어휘장에서도 ‘-하다’ 앞에 오는 어근의 음절수가 5음절인 경우보다 4음절인 경우가 더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말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비리척지근’과 ‘비척지근/비리치근’도 본말과 준말의 관계인데, ‘비리척지근’의 ‘리’가 탈락되어 ‘비척지근’이 되고 ‘척지’가 ‘치’로 축약되어 ‘비리치근’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비리치근’과 ‘비척지근’에서도 각각 ‘리’가 탈락되거나 ‘척지’가 ‘치’로 줄어서 ‘비치근’이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4)에서는 ‘달짝지근:달짜근’과 ‘달착지근:달차근’에서만 ‘짝지’가 ‘짜’로, ‘착지’가 ‘차’로 줄어들었고, 나머지 예들에서는 ‘짝지, 짝지’는 ‘찌’로, ‘척지’는 ‘치’로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5)의 ‘고답지근’과 ‘끈적’은 (13)에서 제시한 ‘어근의 축소형 + 어근 파생 접미사’ 유형이다.

4) 어간의 어근화

드물기는 하지만 형용사나 동사의 어간이 어근으로서 ‘-하다’와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한 경우가 (20)과 같이 있다.

- (20) 등글다: 등글하다/등글등글하다, 거칠다: 거칠하다/거칠거칠하다, 시들다: 시들하다/시들시들하다, 빼뺨다: 빼뺨하다/빼뺨빼뺨하다, 빼뺨다: 빼뺨하다/빼뺨빼뺨하다¹¹²⁾

(20)의 어간 ‘둥글-, 거칠-, 시들-, 빼뜯-, 빼뜯-’의 공통점은 2음절이고 ‘ㄹ’로 끝난다는 점이다. 이들의 경우 어간이 형태 변화 없이 그대로 어근이 되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어근 파생 접미사 ‘-(으)ㄹ’에 의해 형성된 어근 ‘가물가물, 구불구불, 씹씹, 누글누글’ 등과 ‘ㄹ’로 끝나는 어근 파생 접미사 ‘-실, -슬, -틀’에 의해 형성된 ‘검실검실, 앓실, 곱슬, 등실, 비틀, 눅실’ 등에 의해서 어근 말음이 ‘ㄹ’인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이들과 비슷하게 어간 말음이 ‘ㄹ’이라는 형태적 유사성에 의해 ‘둥글-, 거칠-’ 등의 어간이 쉽게 어근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같다. ‘ㄹ’이 아닌 다른 자음이나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은 이러한 현상이 얼마 발견되지 않는다.¹¹³⁾

5) 유추

감각형용사라는 어휘장에는 어근 파생 접미사에 의해 형성된 어근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기존 어근의 형태에 유추되어 새 어근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것은 어근의 형태를 일치시켜 그 형태를 띠는 어근들의 의미와 비슷한 의미를 획득하는 방법이다.

(21) 1) 불그름, 볼그름, 발그름, 벌그름, 빨그름, 뽀그름, 뽀그름, 뽀그름

cf. 노름, 누름, 파름파름

2) 불그무레, 볼그무레, 발그무레, 벌그무레

cf. 거무레, 노르무레, 푸르무레, 회끄무레

3) 뜻뜻무레 cf. 노르무레, 고소무레, 비스무레, 뚱뚱무레, 흐리무레

4) 차끈 cf. 따끈, 뜨끈

(21-1)의 ‘불그름’은 ‘불- + -(으)름’으로 분석될 듯하나 색채형용사 중에

112) ‘빼뜯하다’는 『고려대』에 ‘빼뜯다’의 비표준어로 올라 있고, ‘빼뜯하다’는 『우리말샘』에 등재되어 있다. ‘비뜯하다, 배뜯하다’는 사전에 없지만 ‘비뜯비뜯하다, 배뜯배뜯하다’는 있다.

113) 앞의 (16)의 예로 든 ‘아리다:아리아리’알알, 비리다:비리비리, 저리다:저리저리, 눅다:눅눅, 축다:축축 정도가 있다.

서 붉은색을 제외한 다른 색을 나타내는 단어에서는 어근 파생 접미사 ‘-(으)름’이 분석되는 어근이 없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것은 ‘노름하다, 누름하다, 푸름푸름하다’ 등에서 분석되는 어근 파생 접미사 ‘-(으)ㄹ’에 의해 형성된 ‘노름, 누름, 푸름푸름’ 등과 같이 ‘름’으로 끝나는 어근을 만들기 위해 ‘붉다’에 ‘-(으)름’을 결합시킨 것으로 해석된다.¹¹⁴⁾ (21-2)의 ‘불그무레’도 ‘붉- + -(으)무레’로 분석될 듯하나 다른 색채형용사에서는 ‘-(으)무레’가 분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노름:노르무레, 푸름:푸르무레, 희끔:희끄무레, 검-:거무레’ 등의 어근쌍을 보면 각각의 색깔에 ‘-무레’형 어근이 있음에 이끌려 붉은색 색채형용사에서 ‘-무레’형 어근을 만들기 위해 ‘붉-’에 ‘-(으)무레’를 결합시켜 ‘불그무레’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미각형용사에서 분석되는 ‘달큼:달크무레, 시금:시그무레, 새금:새그무레, 시름:시크무레, 새름:새크무레’의 어근쌍도 이러한 ‘-무레’형 어근의 형성을 지지하는 근거가 되었을 것이다.

(21-3)의 ‘뜨뜻무레’도 ‘뜨뜻하다’라는 단어에서 “조금 뜨뜻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를 형성하려는 동기에서 ‘뜨뜻’에 ‘-무레’를 결합시켜 어근의 형태를 ‘무레’로 일치시킨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무레’형 어근은 색채형용사나 미각형용사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방언형으로 ‘고소무레, 비스무레, 뚱뚱무레, 흐리무레’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무레’형 어근이 형성되는 영역이 색채나 미각에서 시작(‘비스무레, 뚱뚱무레, 흐리무레’)이나 촉각(‘뜨뜻무레’)에까지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21-4)의 ‘차끈’은 ‘뜨겁다:뜨끈하다’와 ‘따갑다:따끈하다’의 단어쌍에서와 같이 ‘차갑다’에 대응하는 ‘-끈하다’형 단어를 만들기 위해 ‘뜨끈, 따끈’과 같이 ‘끈’으로 끝나는 2음절 어근으로 ‘차끈’을

114) 한 심사자는 (21가)에서 ‘불그름’이 ‘노름, 누름, 파름’에 이끌려 형성될 정도로 ‘노름, 누름, 파름’의 사용 빈도가 높지 않다고 하면서, ‘불그름’이 ‘불그스름’에서 축소되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고려대』에서도 ‘불그름하다’를 ‘불그스름하다’의 약어로 제시했다. 그러나 ‘거무스름, 하얗스름, 누르스름, 푸르스름’에서 축소되어 형성된 어근(*거무름, *하야름, *누르름, *푸르름)이 없다는 점은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렵게 한다. 홍석준(2015:134-135)에서는 ‘불그름하다’와 ‘불그무레하다’가 형성된 배경으로 다른 유채색 계열인 노란색과 파란색에서 ‘누름하다, 푸름푸름하다’와 ‘누르무레하다, 푸르무레하다’가 존재하여 이들 단어와 평행하게 ‘-름하다’형 단어와 ‘-무레하다’형 단어를 붉은색에서도 채우려고 하는 동기가 작용한 것으로 설명했다. 본고에서는 홍석준(2015)의 설명이 더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그 설명을 따른다.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지금까지 감각형용사를 시각, 미각, 촉각, 청각형용사로 구분하여 각 어휘장에서 분석되는 어근 파생 접미사 목록과 그 접미사에 의해 형성된 복합어근을 제시했다. 그리고 감각형용사 어휘장에서 파악되는 어근 형성 방법을 파생, 합성, 내적 변화, 어간의 어근화, 유추로 나누어 설명했다.

2장에서는 감각형용사에서 분석되는 어근 파생 접미사 목록과 복합어근을 제시했는데, 시각형용사는 그 어휘가 풍부하여 다시 색채형용사, 명암형용사, 크기형용사, 모양형용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색채형용사에는 24개 유형, 명암형용사에는 12개, 크기형용사에는 27개 유형, 모양형용사에는 16개 유형의 어근 파생 접미사가 있었다. 그리고 미각형용사에서는 13개 유형, 촉각형용사에서는 33개 유형, 청각형용사에서는 3개가 확인되었다. 그 중에서 송정근(2007)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어근 파생 접미사로 색채형용사에서 13개, 명암형용사에서 3개, 크기형용사에서 12개, 모양형용사에서 7개, 미각형용사에서 3개, 촉각형용사에서 13개, 청각형용사에서 3개를 더 제시했다.

3장에서는 감각형용사의 어근이 형성되는 방법으로 파생, 합성, 내적 변화, 어간의 어근화, 유추에 대해 대표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다. 파생은 ‘1) 형용사나 동사의 어간 + 어근 파생 접미사(검- + -(으)ㅂ → 거뭇), 2) 파생 어근 + 어근 파생 접미사(길쭉 + -(으)스름 → 길쭉스름), 3) 어간의 반복 + 어근 파생 접미사(쓱쓱(*쓰쓰) + -(으)ㄴ → 쓱쓱), 4) 어근의 축소형 + 어근 파생 접미사(고탑탑(< 고리탑탑) + -지근 → 고탑지근)’로 더 세분할 수 있다. 합성은 ‘1) 동일 어근의 반복(거뭇거뭇), 2) 다른 두 어근의 결합(새콤달콤), 3) 형용사나 동사의 어간 반복(둥글둥글)’으로 이루어진다.

내적 변화에는 ‘1) 어근의 음운교체(불긋:불긋, 불긋:빨긋, 노르끄레:너르

끄레:노리끼리), 2) 어근의 확대(질꼭:질커덕), 3) 어근의 축소(거머무트름: 거무트름)’ 등이 있고, 어간의 어근화는 형용사나 동사의 어간이 형태 변화 없이 어근으로서 ‘-하다’와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하는 것이다(둥글다:둥글하다). 또한 기존 어근들의 형태에 유추하여 같은 형태를 띠는 새 어근을 만들어서 기존 어근들과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방법(뜨뜻무레 cf. 노르무레, 고소무레, 비스무레)도 발견된다.

이 논문은 한국어 감각형용사에서 분석되는 어근 파생 접미사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여 그 목록을 제시하고, 감각형용사의 어근을 형성하는 방법을 정리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 과정에서 송정근(2007)에서 제시한 자료와 분석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 송정근(2007)에서 제시하지 않은 어근 파생 접미사들을 더 추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글에서도 미처 제시하지 못한 감각형용사와 어근 파생 접미사, 어근 형성 방법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감각형용사 어휘장을 더 찬찬히 들여다보고 어휘 수집과 단어 분석을 꼼꼼히 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이 글에서 감각형용사의 어근과 의태어근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가끔 언급했으나 이 두 어휘장을 차분히 비교하여 분석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감각형용사의 어근과 의태어근에 대해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해 내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연구 대상이 되는 자료를 표준어뿐만 아니라 방언까지 확대하여 각 방언별로 감각형용사의 어휘장을 분석하면 이 글에서 논의하지 못한 주제를 더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사전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편찬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네이버 국어사전(<https://ko.dict.naver.com/>)에서 검색함.)
- 국립국어연구원 편, 『표준국어대사전』, 두산 동아, 1999.(네이버 국어사전(<https://ko.dict.naver.com/>)에서 검색함.)
- 국립국어원 편, 『우리말샘』, 국립국어원 홈페이지(<https://opendict.korean.go.kr/main>).(네이버 국어사전(<https://ko.dict.naver.com/>)에서 검색함.))
- 김민수 · 고영근 · 임흥빈 · 이승재 편, 『금성판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1991.
- 네이버, 『네이버 국어사전』(<https://ko.dict.naver.com/#/main>).
- 박용수, 『우리말갈래사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유재원 편, 『우리말 역사사전』, 정음사, 1985.
- 전라북도, 『전라북도 방언사전』, 신아출판사, 2021.(전라북도 홈페이지 '전자책 - 문화예술자료'(https://www.jeonbuk.go.kr/ebook/index.jeonbuk?menuCd=DOM_0000014040020000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네이버 국어사전(<https://ko.dict.naver.com/>)에서 검색함.)

2. 단행본

- 고영근, 『국어 형태론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
- 곽일성, 『한중 感覺形容詞 대조 연구』, (주)도서출판 夏雨, 2017.
- 손용주, 『국어어휘론 연구방법』, 문창사, 1999.
- 宋結儀, 『國語의 派生語形成 研究』, 國語學叢書 18, 太學士, 1992.
- 정재윤, 『우리말 감각어 연구』, 한신문화사, 1989.
- 최형용, 『한국어 형태론』, 역락, 2016.

3. 논문

- 김강출, 『국어 파생 의태어근의 형태통사적 특성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김영철, 『國語 固有語系 色彩語에 관한 研究』, 군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김정남, 「'aa-하다' 형용사의 형태 · 의미론적 특징」, 『형태론』 제5권 제2호, 박이정, 2003, 225~254쪽.
- 김창섭, 「시각형용사의 어휘론」, 『冠岳語文研究』 第10輯, 서울大學校 國語國文學科, 1985, 149~176쪽.(김창섭, 『한국어 형태론 연구』, 태학사, 2008, 341~370쪽에 재수록됨.)
- _____, 「한국어 어휘론」,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1』(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 국어교육연구소 · 언어교육원 공편), 2014, 211~212쪽.
- 박동근, 「동사에서 파생한 의태어 연구」, 『한말연구』 45, 한말연구학회, 2017, 37~65쪽.
- 배해수, 「맛 그림씨의 날말발」, 『한글』 176, 한글학회, 1982, 67~91쪽.
- 손세모돌, 「국어 색채어 연구」, 『한말연구』 6, 한말연구학회, 2000, 133~165쪽.
- 宋源容, 「국어의 단어형성체계 재론」, 『震檀學報』 104, 震檀學會, 2007, 105~126쪽.
- 송정근, 「미각형용사의 형태론」, 『형태론』 제7권 제2호, 박이정, 2005, 303~324쪽.

- _____, 『현대국어 감각형용사의 형태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_____, 『固有語 複合語根 範疇 設定에 대하여』, 『語文研究』 제37권 제3호, 韓國語文敎育研究會, 2009, 145~167쪽.
- _____, 『한국어의 청각형용사와 의성어』, 『한국언어문학』 104, 한국언어학회, 2018, 33~55쪽.
- 오청진, 『전남 무안 지역의 색채 형용사 - 복합어를 중심으로』, 『한글』 279, 한글학회, 2008, 119~152쪽.
- 이문규, 『현대국어 상징어의 음운·형태론적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이병근, 『유음 탈락의 음운론과 형태론』, 『한글』 173·174, 한글학회, 1981, 223~246쪽.
- 이승명, 『국어 색상 표시어군의 구조에 대한 연구』, 『어문학』 54, 한국어학회, 1993, 287~326쪽.
- 이지희, 『국어 촉각 형용사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이필영, 『색채어 연구』, 『霽曉 李庸周博士 回甲紀念 論文集』(霽曉 李庸周博士 回甲紀念 論文集 刊行委員會 編), 한샘, 1989, 619~638쪽.
- 임성규, 『어근 형성 접미사의 설정 연구』, 『우리말 연구의 샘터』(연산 도수희선생 회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편), 문경출판사, 1994, 446~460쪽.
- _____, 『형용사 파생에 관여하는 어근 접미사 연구』, 『한국언어문학』 39, 한국언어학회, 1997, 1~19쪽.
- 전은진, 『후각 형용사의 의미론적 연구』, 『국제어문』 51, 국제어학회, 2011, 9~47쪽.
- 정인호, 『어감 표현과 전설모음화의 한 유형』, 『우리말글』 57, 대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13, 55~77쪽.
- 조현웅, 『한국어 의태어의 어원 고찰』, 『우리말연구』 47, 우리말학회, 2016, 155~186쪽.
- 최형용, 『단어 형성과 음절수』, 『국어국문학』 138, 국어국문학회, 2004, 183~205쪽.
- 홍석준, 『국어 색채형용사의 어휘형태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_____, 『‘새침’의 사전 처리와 ‘새침을 떼다’의 형성』, 『한민족어문학』 82, 한민족어학회, 2018, 39~62쪽.
- _____, 『검은색 색채형용사에서의 ‘거머Y’형과 ‘검Z’형 어근의 분석』, 『어문학』 149, 한국어학회, 2020, 125~151쪽.

Root Derivational Suffixes and Root Formation of Korean Sensory Adjectives

Hong Seok-jun*

In Korean, most sensory adjectives in native words have the structure of ‘complex root + *-hada*’. Derivative suffixes that form the root of sensory adjectives have not yet been listed, and the method of forming the root has not been clarified in detail. In this paper, sensory adjectives are classified into sight, taste(including olfactory), tactile, and auditory adjectives, and a list of root derivational suffixes analyzed in each lexicon and complex roots formed by the suffixes are presented. And it was revealed that there are derivation, compounding, internal change, rooting of stem, analogy. In sight adjectives, root derivational suffixes were analyzed 24 in color adjectives, 12 in light and dark adjectives, 27 in size adjectives, and 16 in shape adjectives. For root derivational suffixes, 13 were analyzed in taste adjectives, 33 in tactile adjectives, and 3 in auditory adjectives. The most common method of derivation of a root is that the root derivational suffix is combined to the stem (*geom-* + *-(eu)s* → *geomus*), and commonly the compounding is composed of repeating the same root(*geomus-geomus*) or combining different roots (*saekom-dalkom*). There are two methods for internal change: a method of replacing the consonants and vowels of a root root(*bulgeus:bolgeus:ppeulgeus*), and a method of increasing the number of syllables at the root (*jilkeog:jilkeodeog*) or reducing (*geomeomuteureum:geomuteureum*). Rooting of

* Lecture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tem of adjective or verb is combining with ‘-hada’ as a root without changing the form(*dunggeul:dunggeulhada*). The analogy is a method of taking a form that resembles the form of the existing roots, thereby giving a similar meaning to them(*tteutteusmure* cf. *noreumure*, *sigeumure*).

Key words: sensory adjectives, root derivational suffixes, root formation, derivation, compounding, internal change, rooting of the stem, analogy